The Korea Times Toronto

— 1 —

週刊한국

토론토발행인 : 김 영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pscription fee $90. per year, $8.00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일간) No. 563 1981년7월11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Saturday, July 11, 1981

AUG 1 4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朴憲永 영향력 強해지자 타락·反動分子몰아 除去

【號外】이주로 通牒。이 만주에서 [illegible]했었다고 떠돌아다니고 있지만, 北韓지역과 南韓지역에 존재해있던 공산주의자에 비해 북한을 제외한 다른나라에선 金日成(본명·金成柱)등은 국내에 아무런 기반이 없었다。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있다。다만 확실한것은 金日成이 소련으로 이주했으며, 1945 北韓의 선전기관들은 金日成

년 9월「金日成」이란 이름으로 북한 주둔 소련군과 함께 귀국했다는 사실이다。그러므로 한국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운동의「정통성」을 굳이 따진다면 日帝치하에서부터 계속 국내활동을 해온 사람들에게 있어야할 것이다。

그래서 金日成은 자신보다 기반이 있고 정통성을 주장할 수있는 朴憲永 등을 숙청하기로 마음 먹을수밖에 없었다。金은 이 작전의 기초작업으로 우선 北勞黨내의 국내파를 제거함으로써, 朴憲永을 지지하는 북한내의 據點을 제거함과 함께 그들과 계속하려는 소련파인 許哥而등을 비롯 숙청한 뒤 본격적인 공격 준비를 진행했다。

◇金日成

◇金正日

特輯

人民없는 金日成王朝

神格化등 史上類例없는 怪奇한 北韓 實態

아들이 아비를 치켜 세우니 아비가 아들을 찬양한다 父子끼리 장군 멍군 기가 막혀 숨막힐 지경이다

특집

많은 사람이 있는데서 아들이 아비를 추켜세우니 아비가 아들을 찬양한다。남들은 아랑곳없이 父子끼리 장군 멍군, 기가 막혀 숨이 막힐 지경이다。이것은 어느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1천8백만 주민이 살고 있는 北韓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아들은 아비를 보고「神」이라 하고 아비는 새파란 젊은 아들을 가리켜「위대한 혁명의 후계자」라고 부른다。1천8백만의 生存이야 아랑곳없이 그 넓은 땅에서 오직 金日成父子의 놀음만이 天下를 支配하고 있다。人民이 없고 人民의 역할이 부정되고있는 北韓의 實態를 본다。

■兒名 金修羅 序列2位浮上

태어나서 4살까지는 金修羅, 소년기에는 소련식으로 불리다가 해방후 北韓으로 돌아와서는 金正一, 그러다가 다시 金正日로 이름을 고친 金日成의 큰 아들이 36년간에 걸쳐 北韓에 군림해온 金日成의 후계자로서 2대째「首領」을 世襲할것을 공언하고 나섰다。

1980년10월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10년만에 열린 소위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석상에서의 일이다。이 자리에서 金正日은 黨中央委員會 書記局 10名중 金日成에 이어 2위, 黨政治局常務委員 5명중 4위, 黨中央軍事委員 19명중 3위에 각각 랭크 되었다。

북한에서 書記局, 政治局, 軍事委員會등에 모두 랭크된 者는 金日成 父子뿐이다。북한의 모든 기관에서는 金正日을 격상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데 그 한 例가 김영남의 발언이다。지난 3월16일 북한 노동당의 국제부장이라는 김영남은 북한을 찾은 日本기자와 만나『金正日동지는 지도자로서의 자질, 풍모, 특성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갖추었으며, 金日成의 지도이론을 더욱 진화·발전시키고 있다』고 과장하고「金正日이 金日成의 후계자」임을 강조했다。(日本 讀賣新聞 1981년3월 17일字)

金正日 格上에 모두들 혈안 外部엔 後繼문제 露出 않고

그런데 金日成은 이처럼 내부적으로는 세습 후계를 확정해놓았으면서도, 外部에 대해서는『모르는 일이다』『존재하지 않는다』『혁명가는 후계자문제 따위는 논의하지 않는다』운운하며 부정해왔던것이다。1976년 11월 27일자 일본 每日新聞 조간에 金日成과 日本의 평론가 小田實과의 1문1답이 실렸는데, 그때에도 金日成은『나는 젊으며,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후계자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까。더구나 혁명가는 후계자문제를 논의하지 않는게 상식이다』라고 단언하였던것이다。

■世襲에의 野望

金日成은「혁신적」인 용어를 남발하면서 한편으로는 고리타분한「세습제」를 확립하기 위해, 실로 36년간이라는 세월을 허비했고 피의 숙청을 단행해온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강경론을 펴온 論敵및 政敵을 여러가지 명목을 붙여 제거해왔을뿐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인물까지 권모술수를 다해 제거·숙청해왔다。

金日成이 그 政敵에대해 감행해온 肅淸史는 1945년 8월15일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쉴새없이 계속하였는데 그 특징적인 숙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金日成자신이 직접 상대를 공격하는것이 아니라, 같은 파벌내의 A를 사주하여 B를 공격, 숙청하고 그 다음에는 B를 C가 공격·숙청해버린다는 지극히 음험한 수법을 사용한다는것이다。그리고 숙청할 때의 구실은 판에 박은듯이「地方主義者」、「가족주의자」、「美제국주의의 스파이、기회주의자、수정주의자、반동주의자、타락분자、暗行분자」중에서 어느 하나의 딱지를 붙여왔다。

북한에서 있은 대표적인 숙청으로 南勞黨잔당에 대한 숙청을 들수있다。해방직후부터 朴憲永·李承燁 등 남로당계열의 남한출신 공산주의자들의 존재는「원대한 계획」、즉 金日成을 祖宗으로 하는 一族의 영원한 세습화를 추진하려는 金日成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방해자로 비쳐왔다。왜냐하면 남로당系는 국내공산주의운동의 正統性을 보유하고 있었을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朴憲永의 개인적인 능력과 영향력이 金日成보다 훨씬 뛰어났기 때문이다。

이 점을 이해하기위해서는 1945년 8월15일 이전의 한반도에서 공산주의그룹이 행한 지하활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지역적으로 남한·북한·해외(주로 滿洲 등) 3대파로 대별할 수 있다。

【北韓지역】咸鏡北道에서는 金采龍(1948년 숙청)、咸鏡南道에서는 朴金喆(1967년 숙청)、李孝淳(1967년 숙청)、吳琪燮(1956년 숙청)、鄭達憲(1948년 숙청)、李舟河(1956년 숙청)、李鳳洙(1956년 숙청)、平安北道에서는 金台俊(1953년 숙청)、白容龜(不明)、朴韓甲(不明)、平安南道에서는 玄俊赫(1945년 암살)등이 활동하고 있었다。

【南韓지역】南韓에서는 朴憲永、李承燁등이 중심이 되어 움직였다。朴憲永은 1925년 조선공산당에 입당한 고참당원인데 그의 공산주의에 관한 이론수준및 투쟁경력에 金日成은 발밑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朴憲永은 1928년 코민테른의「12월 테제」에 의해 해산된 조선공산당을 재건하기 위해 그「준비위원회」를 조직, 북한지역에서 활동중인 공산주의자와 밀접한 연락을 유지하면서 1945년 8월15일의 해방을 맞기까지 농촌, 공장, 광산지대에서 움직여왔다。

해방되던해 9월11일에 차은 조선공산당을 재건하여 서기장에 취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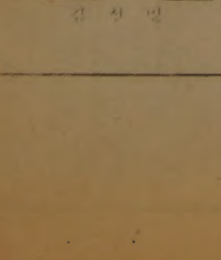
그리고 1946년 11월에는 남한에 난립했던 조선공산당·新民黨·人民黨의 좌익 3派를 합병하여「남조선노동당」을 발족시켰고 그「總秘書」에 취임함으로써 南韓에서의 좌익세력을 장악했다。

◇金으로 칠해진 金日成동상앞에서 個人崇拜교육을 받는 노동자들。金日成만이 있을뿐 人民이 없는 북한의 상징적인 모습이다。

SunLife OF CANADA

"여성보험인등장"

Sun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Congratulates Kim Shinmyong on her appointment as sales representative of the Company's Toronto Metro Bran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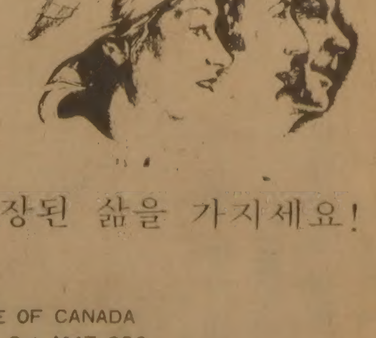


김신명

Sun Life 는 종전과는 달리「생명보험」뿐만이 아니라 교육, 연금, 주택, 사업금융 모기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질 문화권의 캐나다 대륙을 딛고 새꿈을 이룩하려는 이민생활에서 가장 적당하고 가장 알맞는 보험에 관한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성심 성의로 여러분의 곁에서 도와드리겠읍니다. 교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들에 일익번영이 깃들기를 앙망 합니다.

김 신 명 드림

취급보험
- 생명보험
- 교육보험
- 연금제도
- 그룹보험
- 주택, 건물및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R.S.P



보장된 삶을 가지세요!

주소 : TORONTO METRO BRANCH SUN LIFE OF CANADA
22 St. Clair Ave. E. 4th Floor Toronto, Ont. M4T 2S3
B)922-3111 R)439-8885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 (416) 533-2361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M5S

6·25후 巨物級 政敵 하나하나 모조리肅清

■「拷問의 해」

朴憲永 등은 1948년 11월, 조선공산당·新民黨·人民黨등 좌익 3당을 합병,「남조선노동당」을 발족시켰으나 그들의 파괴활동에 의해 미군정당국으로부터 체포령이 내리자, 남조선 간부들과 함께 북한의 평양으로 도망쳐버렸다.

朴憲永은 平壤으로 가기전에 심복부하를 북한에 파견, 국내파인 북한系와 제휴하는 한편, 자기의 심복인 崔容達 李承燁 등을 요직에 취임토록 해서 북한에서의 기반을 구축했다.

또 朴憲永등은 남한에서의 파괴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 조선노동당 연락부(대남파괴공작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를 대남공작의 참모본부로 확대하는 한편, 무장유격대와 정치공작대의 합숙훈련소인 金剛學院에서 파괴공작요원을 양성했다.

朴憲永은 이곳에서 1952년 9월까지 1천명을 훈련, 무장시킨뒤 平壤에서 40㎞ 떨어진 中和郡에 주둔시켰다. 朴과 같은 남로당 간부로서 대남파괴공작원 양성을 책임맡은 李承燁은 그에 만족하지 않고 대원을 4천명으로 증가시킬 계획을 세웠다.

이와같은 상황을 지켜본 金日成은 그들 계략가 朴憲永의 私兵으로 변하여 언제인가 자신에게 대항하게 될까 염려하여 북한내에 있는 남로당系 전원을 숙청할 결심을 굳히기에 이르렀다. 그러던중 6·25동란이 한창이던 1952년 12월 15일 金日成은「노동당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1950년에 소집된「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中共派의 武亭을, 이듬해의「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소련派의 許哥而를 숙청한데 이어「제5차 전체회의」에서는 朴憲永등 남로당 간부들을 숙청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상투적인 수법이긴 하지만 이 회의에서 朴憲永에게 공격의 화살을 퍼부은 것은 이미「제4차 전체회의」에서 許哥而를 숙청한 때부터 선봉적인 역할을 했던 부수상 朴昌玉(소련派)이었다. 朴昌玉은 李承燁(朴憲永派)등의 죄상을 열거한 뒤 그 배후에 朴憲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다 6·25당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와 있던 毛澤東軍소속 조선인 부대와 延安派도 거기에 가담하여 남로당을 공격했다. 李承燁에게 뒤집어 씌운 혐의는 ①남로당계열을 결속하여 ②미국과 결탁, 당내에 부르좌 사상을 퍼뜨리고 ③조선노동당을 전복시키려 했다 ④李承燁등의 배후에는 朴憲永이 있으며 ⑤그들은 개인영웅주의자란 것이다.

해가 바뀌어 1953년은 남로당 출신자에게 있어 글자 그대로「拷問의 해」였다. 남로당 출신자들은 한 사람 남김없이 투옥되고 철저한 자기비판이 강요되었다. 李承燁은 물론이고 그 배후에 있는 朴憲永이 권력 탈취음모를 하고 있었다는 걸 강제로 인정시킨 뒤, 전원 압록강·두만강 유역으로 추방했다.

그리고 같은 해 3월에는 平壤에서 소위「최고재판소 군사재판」이 열려, 남로당 최고간부인 李承燁 趙一明 林和 朴勝源 李康國 裵哲 白享福 趙鏞福 孟鍾鎬 薛貞植 등 10여명에 대해 사형판결을 내리고 즉시 집행해버렸다. 그리고 尹淳達 李源朝에게는 각각 15년과 10년형이 언도되었다.

그러나 기소장에는「朴憲永을 두목으로 한…」운운하는 귀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朴憲永 자신은 이 재판에서 제외되었다. 그 이유는 남로당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것과 다른 하나는 內外에 미칠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였다.

朴憲永은 李承燁등이 처형된후, 2년4개월동안「敎所」(형무소)에 감금되었다가 1955년12월15일, 비공개특별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판결은 사형이었고 즉시 집행되었다.

53년 罪目씌워 南勞黨 간부즉각死刑집행

朴憲永은 內外反應두려워 監禁했다 死刑

朴憲永에 대한 기소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朴憲永은 1919년 언더우드란 미국스파이와 접촉했다.

②朴憲永은 1925년에 일본 경찰에 체포된 뒤, 일제의 조선공산당 탄압의 앞잡이가 되어 활동했다.

③朴憲永은 해방후, 고의로 남로당에 사보타지와 극렬투쟁을 명령함으로써, 많은 공산당원을 체포케 했고 당의 세포조직을 완전히 파괴했다.

④朴憲永은 종파주의자이며 영웅주의자로서 당의 결정에 사사건건 저항했다.

⑤한국동란의 개시에 있어서, 남조선에는 50만의 남로당원이 지하조직을 가지고 있어 전쟁이 시작되면, 즉시 호응, 궐기하여 단시일내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수 있다고 보고했지만 6·25 전과정을 통해 실제로는 흔적도 없었다.

⑥朴憲永은 李承燁 趙一明 一派의 스파이 행위를 조종하였고, 李承燁 裵哲을 사주하여 무력쿠데타를 음모했다.

⑦朴憲永은 金剛學院의 경비를 빙자하여 금괴를 비롯한 많은 국가재산을 착복했다.

남로당 간부에 대한 숙청은 이렇게 해서 끝났다. 또 남로당 최고간부에 대한 숙청과 동시에 남한 출신자를 전부 노동당에서 추방함과 동시에 가족까지 포함해서, 모두 압록강·두만강 유역으로 집단 이주시켰다.

남로당 최고간부 이외에 해방이후 북한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가 숙청된 金日成의 거물급 政敵들은 다음과 같다.

【소련派】許哥而(부수상) 朴昌玩(부수상) 金承化(건설相) 李相朝(주소련대사) 蔡平山(인민군 제4군단장) 尹公欽(재정相) 李英鎬(민족방위副相) 朴昌玉(부수상)

【中共派】金枓奉(노동당 부위원장) 武亭(인민군 제2군단장·평양방위사령관) 崔昌益(부수상) 金昌滿(부수상) 朴一禹(내무相) 方虎山(군단장) 石山(사회안전相)

【國內派】平壤地區—玄俊赫 咸鏡南道—朴金喆 李孝淳 吳琪燮 鄭達憲 朱寧河 李舟河 咸鏡北道—金台俊 金戴甲 白容龜

【軍 숙청】1972년1월4일~14일간에 걸쳐 개최된「인민군 당 제4기 4차 확대전체회의」에서「金日成 유일사상체계확립에 반대했다」고 낙인이 찍혀 숙청된 군의 고급장성은 金昌鳳대장(부수상겸 민족보위상) 許鳳學대장(對南사업총국장) 崔光대장(인민군 총참모장) 金光俠대장(민족보위相) 崔鉉上將(제1 집단군사령관) 鄭秉甲상장(제3 집단군사령관) 金陽春상장(제7 집단군사령관) 鄭昌福중장(해군사령관) 金正泰중장(민족보위성 정찰국장)등이다.

이상 열거한 사람들은 만주에서 유격 활동을 했거나 中共軍에서 활약한 사람들이었다.「숙청」된 사람들은 1972년 5월 전원 총살되었다.

또 1974년 2월에는 李乙設 대장(인민군 제5집단군사령관)이 숙청되었다. 李대장은 만주 시대의 金日成의 당번병이었으며, 측근 중의 측근이라 일컬어졌으나「金日成 유일사상 체계와 金正日 세습 후계에 반대」했기 때문에 숙청되었다.

■숙청과 강제이동

남로당 간부의 숙청에 이어 중견간부·말단당원·일반주민에 대한 숙청은 1958년부터 3회에 걸쳐 행해졌다.

①「중앙당 집중지도 사업」

1958년에서 60년까지 행해졌는데, 이 숙청조사에서는 북한 주민을「신뢰할 수 있는 층」과「신뢰할 수 없는 층」으로 분류했다.「신뢰할 수 있는 층」이란 혁명가의 유족, 북조선인민군 장병과 그 가족, 전사자의 유족, 노동당 간부와 그 가족이며,「신뢰할 수 없는 층」은 월남한 자의 가족, 한국동란 때 한국측에 협력한 자의 가족, 과거의 종교인, 지주, 기업가였던 사람과 그 가족, 한국측의 포로였던 자와 그 가족, 刑 복역자와 그 가족, 숙청당한 자의 가족 등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서「신뢰할 수 없는 층」의 주민을「내각 결정 149호」라는 政令으로, 주요도시·해안선·휴전선 등지에서 압록강·두만강변의 북부 오지로 강제이동시켰다. 이동당한 사람의 수는 가족까지 합해서 3백만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제149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신분증에「149호」란 스탬프가 찍히고 거주에 제한을 받을 뿐 아니라 모든 행동은 일일이 당국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②「주민재등록사업」

1966년 4월부터 67년 3월까지 행해졌다. 이 숙청조사에서는 본인으로부터 8代祖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사되었다. 그 결과 주민들을 50 계층으로 분류한「분류표」를 만들어 감시하기 쉽도록 했다. 그리고 金日成 체제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계층으로부터는 노동당에 入黨할 기회나 군의 간부, 상급학교에의 진학등의 기회를 박탈해 모든 분호를 폐쇄했다.

③「당원증 재교부사업」

1972년말에 북조선 노동당원들에 대한「당원증 재교부 사업」이 행해졌다.

이 사업의 목적은 金日成 세습 후계를 용인하는 부류를「입당」시키고, 동시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④「국가검열위원회의설치」

이 위원회는 1976년에 발족시켰다. 설치한 목적은 잠재적인 反「金日成—金正日」분자를 적발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金正日 세습 후계의 급속한 움직임에 대해 북한의 공장, 협동농장, 기업소 등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사보타지, 放火, 파괴활동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의 설치는 거기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側近중 側近이었던 金日成 當番兵까지 숙청

◇이른바「聖域化」된 金日成의 生家。북한의 많은 주민들은 이「生家」를 견학하며 金日成唯一思想을 강요받는다。

金日成 자신의 이와같은 人工的인「권위축조」는 金日成의 최고측근인 다음과 같은 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李勇武(金日成의 처의 인척으로, 북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許錟(金日成의 사촌동생의 남편으로 부총리 겸 外相) 楊亨燮(金日成의 사촌동생의 남편으로, 국가검열위원장) 金炳夏(金日成의 조카의 남편으로 국가정치보위국장‖비밀정치경찰장관) 康賢珠(金日成의 외사촌동생으로, 평양시장) 張正桓(金日成의 수양딸의 오빠로 인민무력부‖국방부의 부부장) 黃壯燁(金日成의 조카로, 최고인민회의장) 吳振宇(인민무력부장‖國防相)등에 의해서, 金日成에 대한 최대한 찬사가 대량 제조되기 시작했다.

즉, 일찌기 소련의 스탈린에게 보내졌던 찬사,「인류의 빛나는 태양」「탁월한 군사적 천재」「스탈린 대원수」「사상 최대의 천재」「諸국민의 아버지」(아이자크·드위처著〈스탈린〉참조)등을 본딴 찬사가 마구 만들어져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그래서 지금 인류역사상 일찍기 그 예를 볼 수 없는 찬사의 대홍수가 북한 방방곡곡을 덮고 있으며, 그 속에 金日成이 파묻혀 버릴 지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그 金日成 찬사의 일부를 보자.

북한 및 朝總聯의 공식연설, 보고, 논설, 저작, 보도등에서 金日成에 관한 찬사를 살펴보면 그 어처구니 없는 남발에 소름이 끼칠 정도이다.

①지도자로서의 찬사

「세계혁명의 위대한 지도자」「조선 민족의 영명한 지도자」「혁명 투쟁의 천재적인 지도자」

②군사 전략가로서의 찬사

「백전백승의 강철의 靈將」「불멸의 위훈을 창조하신 靈將」「걸출한 군사전략가」「천재적인 군사전략가」

③英才·천재로서의 찬사

「위대한 혁명의 英才」「창조와 건설의 영재」「민족의 영웅」「혁명실천의 천재」「우리 민족의 전설적인 영걸」

④사상·이론가로서의 찬사

「위대한 사상가이며 이론가」「정력적인 활동가이며 사상가」「영원불멸의 主體사상의 창시자」「혁명무력의 창시자」

⑤태양·별·아버지로서의찬사

「민족의 위대한 태양」「인류해방의 救星」「경애하는 아버지」「민족의 위대한 아버지」「자애로운 아버지」

⑥애국자·수령으로서의찬사

「절세의 애국자」「아버지 수령」「조선혁명의 탁월한 수령」

金日成 讚辭뿐 소름 끼치고

연설·報道·論說·著作·公演등

「역사가 알고있는 위인중에서도 한결 우뚝 솟은 위인이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靈將이고,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인 수령 金日成원수님」등등이다. 그러나 여기 수록한 찬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 찬사 등의 수식어는 날이 갈수록 확대되어, 더 이상 찬사를 찾을 수 없게 된 현재는 몇개의 수식어를 묶어서 단숨에는 읽어내리기도 벅찰 정도의 기나긴 찬사로 모습을 바꾼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金日成派」에 의한 金日成 캠페인이 북한의 방방곡곡에 침투한 걸 확인한 뒤, 金正日을 후계자로서 세습시킬 책동을 시작했다. 제아무리 뻔뻔한 金日成이지만 자기 스스로 세습 후계를 발설하긴 어색했던지, 완전한 심복 중의 하나인 金一이 1973년 9월3일~7일까지 열렸던「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7차 전체회의」석상에서 제의하는 형식을 취하게 했다.

■骨肉相爭

金正日이 후계자로 추거되었을 당시의 당중앙위원회전체회의의 상황 등에 대해 日本의 時事잡지「選擇」77년8월호는「骨肉相爭의 金日成王朝」란 기사 속에서 다음과 같이 그 사실을 전하고 있다.

【비공식으로 긴급 소집된 당정치위원이나 중앙위원의 유력 멤버들 앞에서, 金日成의 지명을 받은 金一(당시 수상, 현부주석)이 소련·中共의 예를 들어, 우량한 후계자를 미리 선정해 놓을 필요성을 역설한 후,「金正日 동지를 위대한 수령님 金日成主席의 후계자로 제안하고싶다」「金正日 동지는 사상적 무장도 굳건하며, 젊기는 하나 당 업적이나 인품면은 金日成 주석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추켜올렸다. 모든것이 金日成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는 출석자들은, 반대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金英柱(金日成의 친동생)만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퇴장했다고한다.

「權威축조」위해 史上類例없는 우상화 洪水

「唯一후계자」로 못박곤 이미지 조작캠페인

(註—지난번 열린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의 최종일인 10월14일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金英柱는 정치국·서기국·중앙군사위원회의 모든 기관에서 제외되었다) 1973년이라면 金正日이 아직 32세때 인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金正日을 1973년 9월,「제2대 수령」으로서 정했다고는 하지만 외부세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비밀로 해두었다. 日本에 있는 朝總聯의「學習組」(註—북조선노동당원에 해당하는 비밀조직) 조직의 학습 등에서는 화제가 되었으나, 그밖에서는 일체 비밀에 붙여졌던것이다.

왜나하면 북한은「사회주의국가」로서 일반적인 인식과 선전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사회주의」체제로 갖추고 그것을 신봉하는 者들이 권력자의 친아들을「후계자로 정하고 세습시킨다」는 예는 전세계적으로 일찌기 없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77년 2월 24일字 日本의 유력신문은 일제히 共同通信의「金正日 후계에 관한 특종기사」를 보도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정치위원회는 이미 金日成의 후계자로서 金正日(36)을 최종적으로 추거하기로 결정, 그에 의한「유일지도체제」확립을 위한 본격적 작업을 개시한 사실이 在東京 北조선소식통에 의해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어서 共同통신은《재일조총련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여 이달 2, 3일 이틀동안 특별간부 강연회를 개최, 金正日을 유일한 후계자로 한다는 평양의 지시를 전달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싯점까지 조총련 내부에서는 준비작업을 추진하면서 외부에 대해서는 발표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이미 북한내에 있어서「제2대 수령 金正日에 대한 이미지 조작 작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金日成은「후계자」로서의 金正日의 체제를 굳건히 하기 위해, 우선 金正日에 대한 호칭변경을 했다. 즉「존경하는 지도자 동지」「경애하는 지도자 동지」등 수식어가 붙은 경칭을 쓰도록 했을뿐 아니라, 金正日에 대한「충성」도 명령한 것이다.

또 金日成과 金正日의 사진을 나란히 공공건물에 걸도록했다. 1977년2월14일 日本 讀賣新聞 조간에《75년가을 讀賣신문기자가 북한을 방문했을때에 연도엔 金日成과 金正日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있었다》는 것—。

이것은 세습후계자로서의 金正日캠페인이 상당히 진행된 2년후의 광경을 보고 쓴 기사인 것이다.

이와같은 캠페인이 金日成의 직접 지시 아래 진행된 것임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을것이다. 또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30대의 젊은 사람에게〈만수무강을 빕니다〉느니〈우리는 충성을 맹세합니다〉는 등의 기사로 된 金正日을 찬미하는 노래까지 만들게 한 것이다.

물론 이와같은 캠페인의 延長線上에는 金正日뿐 아니라 金正日의 아들에 대해서도「대를 잇게」하기 위해, 같은 패턴의 캠페인이 추진되어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세습후계하는 이유로서는 북한에서는「조선전토에서 혁명의 종국적인 승리가 달성되지 않았으므로〈대를 이어서〉그 승리를 위해 매진한다」고 해 왔으나, 최근에는「전 인류적인 규모로 공산주의 사회가 실현될 때까지〈대를 이어〉혁명활동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되므로」라고 세습후계의 계속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조총련간부학습자료)

◇낮에는 쉴사이 없이 일을 해야하고 밤이면 다시「학습」을 해야하는 북한 주민들—。이「학습」은 오로지 金日成 父子에 대한 허황한 선전과「충성심 맹세」로 시종된다。

金正日에 대한 노래는 金日成에 대한 노래가 그랬듯이 앞으로 홍수처럼 전 북한에 흘러넘치게 될 것이란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뿐 아니라, 1973년 9월 이후는 당 회의에 앞서 金正日을 찬양하는 노래를 합창시키고 있다. 또 동년 9월 이후, 북한 전 주민에 대해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正日」이란 이름을 짓는 것을 엄금했고, 현재「正日」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강제로 改名시키는 광태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마무리적인 작업, 즉 知的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소위「3대革命小組」가 그것이다. 소위「3대혁명」이란 사상혁명·기술혁명·문화혁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73년부터 시작된 것인데, 이것은〈金正日이 知的인 인간이란 이미지 高揚〉을 위한 작업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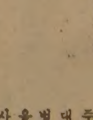
어째서 그런가 하면, 북한사회 방방곡곡은 30여년의 억압정책에 의해 사상·기술·문화 등에 대해「혁명」을 필요로 할 정도로 자유롭지는 않은것이다. 북한의 모든 분야는 金日成에 의해 철저히 통제를 받아 그야말로 획일적으로 굳어버린 것이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金日成은 인부터 金正日로 하여금 1班 3~5인 편성의 그룹을 만들게했고 金正日의 전위부대적인 그룹이 공장·기업·농장 등에「사업감독」「지도」「사상교육」등의 명목으로 순회하도록 한 것이다. 북한이라는 극단적으로 폐쇄된 사회에서는「金日成주석」의「발상」이외에는 그 어떤 인간의 주장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한다면 이러한 金正日의 추대 캠페인이 누구에 의해 행해지고있는가는 당연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다.

「3大革命」이란것도 權威提高위해 만들어

中學국어 교과서에까지 모조리 金日成뿐

■金日成 一家 온퍼레이드

金正日·권위提高 작업은 계속된다. 일반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金正日을 등장시키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金正日뿐 아니라 金正日의 아들인「제3대 수령」에의 伏線도 되는 것이다.



在日 조총련系 학교에서 사용하는 1975년판 중학교 1학년「국어」제20과〈학습의 천리길〉이란 과목은 金日成 一家의 온 퍼레이드를 이루고 있다. 中2, 中3「국어」에서는 金正日을 완곡한 숫법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즉 金正日을 구체적으로 직접 등장시키지 않고, 金正日의 죽은 生母인 金貞淑을「金日成 주석의 충실한 전우였다」는 형식으로 등장시킴으로써 金正日을 간접적으로 등장시키는 숫법을 취하고 있다.

金日成의 현재 아내인 金聖愛와 金正日의 사이는 앙숙이라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총련系 학교에서 사용중인 中2「국어」제4과「불보다 뜨거운 사랑」을 예로 들어보자.

이 과에서 金正日의 어머니인 金貞淑은「용감한 전사였다」「파르티잔 대원들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다」는 식으로 단순한 형태로 등장시키고 있다.

같은 과 29페이지 부분을 인용해보자.

「위대한 수령 金日成 원수님에 대해 한 없이 충실했고, 또한 혁명전사였으며, 자신의 혁명적 생애를 오로지 조선혁명의 위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불요불굴의 공산주의 혁명투사, 金貞淑 선생의 숭고한 혁명적 동지애는 우리들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으며, 사업과 생활에서의 마음의 거울로서 영원히 빛날것이다.」참으로 어처구니없게도 金正日을 드높이기 위해 金正日의 生母를 이런 형태로 등장시키고 있다.

앞에서 말한 中3「국어」에서의 金正日의 어머니 金貞淑의 등장을 살펴보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해 자신의 온갖 것을 바쳐 싸운 혁명투사들의 수많은 일화 중에서도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빛처럼 영원히 빛나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였던 金貞淑선생의 뜨거운 충성심을 우리들 가슴 깊이 새겨넣읍시다.」(제3과「충성스런 마음)

首領 神格化는 봉건 시대의 家父長的 발상

「金貞淑 선생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金日成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그리고 생명을 바쳐 옹호·보위하는 것을 혁명가의 가장 숭고한 의무, 또는 기본적인 품성이라고 생각하여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한 것이다.」

「金貞淑선생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굳게 무장하기 위해, 눈보라치는 날의 행군에서조차 잠시의 휴식시간도 헛되이 안보내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학습에 힘썼다.」

「金貞淑 선생은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金日成원수님의 의도대로 思考하고 행동했으며, 그에 어긋나는 현상과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투쟁했읍니다.」

金日成에 대해「충실했다」「金日成 원수님을 거역하는 행동은 취하지 않았다」등 일관된 표현으로 시종하고 있으며, 그밖에는 金貞淑이란 여인의 인간상을 알 길이 없다.

그리고 교과서의 삽화를 보면 나무밑에「군복을 입은 金貞淑이 金日成과 나란히 권총을 쥐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조총련 관계의 교과서의 내용은 (金貞淑이란 예외로 하고)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때묻인지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다.

金正日의 生母인 金貞淑에 대한 묘사방법을 보아도 그렇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앞에 例를 든 中3「국어」속에서 金貞淑이 사망한 것은 1940년3월로 되어 있는데 같은 책 19페이지에는 1940년 여름에 있었던 金貞淑에 관한 에피소드까지 적혀있다. 1940년3월에 죽은 金貞淑이 같은 해 여름에「활약」한다는건 이상한 일이 아닐수 없다.

또 앞에서 예로 든 中3.「국어」16페이지에는「1940년 3월〈조선인민혁명군〉주력 부대는 추격해온〈토벌대〉와〈홍기하〉에서 접전을 벌였는데, 그때 2발의 탄환을 맞고 金貞淑 여사는 전사한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동 19페이지에는「1940년 여름,(金貞淑여사가)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을 지키며… 적과 영웅적 전투를 했다」고 쓰여 있다. 어쨌든 인쇄상의 誤字였다고, 변명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살아있는 神의 가족에 관한 기사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인·만큼 인쇄상의 誤字가 있을수 있는 일일까?

이러한 金正日부상자전은 조총련을 대상으로 한 공작인 동시에 그 성과를 바탕으로 조총련을 통해 일본의 각계각층에 대해「침투」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와같은 기초작업시기인 1974년 2월19일에 북조선노동당에서 조총련 본부 앞으로「조총련 학습조의 의무 10대원칙」(이하 원칙으로 표기한다)이란 것이 송달되었다.

아들 권위高揚작업도 金日成 자신이 推進

후계자 強要에 朝總聯내부서도 抵抗·批判

이「원칙」에서「지도자 동지의 말」(金正日을 가리킨 것)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과시하고 있다.

「당의 유일 사상체계를 수립하는 사업과 당의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는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혼연일체된 사업인 것이다.

당의 유일 지도체제를 확립하는 것은 그 자체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것이다.」

즉「당의 유일사상체계‖金日成」과「당의 유일지도체제‖金正日」은 완전히 동일한 것이란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후계자는 金正日이므로 그렇게 알라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金日成에 의해 추진되고있는〈金正日에 대한 권위高揚작업〉은 앞에서 말한듯이 온갖 방법을 다해 되풀이되었다.

그런데 재미있는것은 아버지인 金日成이 자기 아들의「권위를 높여주려는」작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아들 正日은 자기 아버지 金日成을「神」으로 승격시키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것역시 북한이라는 사회가 철저한 통제사회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면 金日成 자신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한것이라 보지 않으면 안된다.

즉 앞에서 말한바「원칙」(조선노동당으로부터 조총련「학습조」원 앞으로 보내온 조총련「학습조」의 의무 10대 원칙)에서 金正日은 자기 아버지인 金日成에 대해 학습조원들이 다음과같이「학습」하여 학습조원들의 피와 살이 되도록 하라고 조총련 본부에 지시한 것이다.

「지도자 동지의 말」(金正日을 가리킴)‖「우리는 위대한 수령을「神格化」하고 그어,「무조건」그 원칙을 지키고 수령의 피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온갖 것을 바치는 한없는 충성심을 갖도록 해야한다」

「신격화·절대화·신조화·무조건성, 이것은 수령에 대한 충성의 기본요구, 기본尺度이며, 수령의 충성스런 혁명전사, 진실한 金日成주의자의 가장 기본적인 品性이다」

—봉건전제시대의「家父長的발상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神聖家族

조총련 내부에 있어서 金正日이란 세습「제2대 수령」을 강요하는데 대해 끈질긴 저항과 비판이 되풀이되었다. 특히 상공인·지식분자들 중심으로 한 조총련 조직, 各級 本部급 간부들은 조총련을 이탈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물론 이와같은 현상은 세습후계를 비판하는 태도의 표상인 것이다.

그러나 金正日 세습후계체제를 서두르는 로동당은 궁지에 빠진 조총련 조직에 더욱 채찍을 가하여〈金正日의 국제적인 認知와 후계자 기정사실화〉를 서두르도록 독려해왔다.

북조선로동당의 독려에 의해 조총련안에서 그 첨병적인 역할을 한 것이 學習組員중 일부 맹목적인 분자들이었다. 이 맹목분자들은 세습후계에 대한 많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金日成의 후계자는〈백두산의 정기를 한몸에 받고 태어난 金正日〉이란 것을 강조하고, 조총련 조직에서 세습후계자의 기정사실화와 그 정착을 어거지로 추진하기 위해 학습조원의 강습강화에 힘썼다. 그래도 북조선로동당의 의도대로는 조총련과 日本사회에 침투할 수 없었다.

그런 까닭에 북조선로동당은 학습조에 속한 일부 학습조원의 맹목적인 간부활동가에게「조총련 간부 중에서 세습후계문제에 대해〈세습체제〉운운하며 비난공격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설득교육을 하지만 그래도 다소의 압력이 생겨도 불가피하다」는 태도를 취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를 일부 맹목적인 활동가들은 그 가족중 일부가 북한에 인질로 건너가 있는 사람들뿐이다.

그러나 조총련 간부들은 세습후계체제에 반대하는 자에 대한 대결사태는 어디까지나 조총련 조직 안에서 끝나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들은 이런「사건」들이「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해온 것이다.

한편 조총련본부는 1976년 10월, 북한에서 보내온「친애하는 지도자 金正日 동지의 유일지도체제를 철저히 확립하는 문제」(이하「문제」라고 한다)를 간부학습자료의 교재로 하여, 조총련 간부들을 대상으로 10일간 강습을 개최하여, 金正日 세습

"毛澤東은 後繼안정해 混亂빚어" 例들며

"세습事實 世界에 알려라" 韓德銖에 지시

가정·건강

짜게 먹어도 高血壓 안생긴다

延大 金馹舜교수 異色논문 發表 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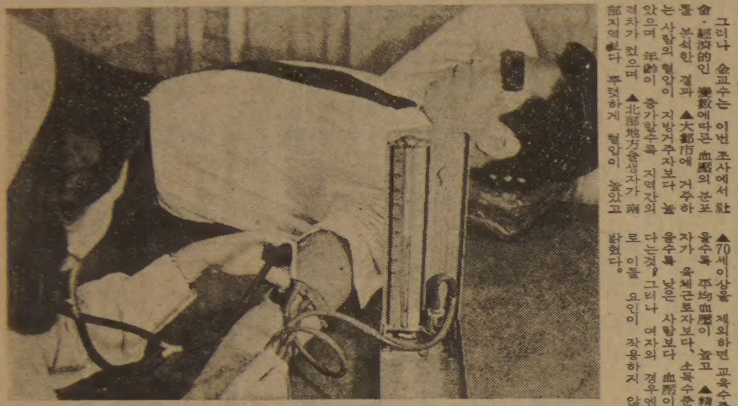
지금까지 짠 음식은 高血壓환자의 禁忌食으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한 醫學論文은 「韓國人에겐 高鹽食이 高血壓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 學界를 놀라게 했다. 과연 高鹽食은 血壓과 無關한 것인가. 延世醫大 金馹舜교수(예방의학)는 81년도 保健學術세미나(5일 서울大보건대학원)에서 「韓國人의 動脈血壓의 분포및 樣相」이란 논문을 발표, 화제를 끌고 있다.

韓國人의 경우엔 高鹽食섭취가 高血壓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敎育·經濟水準이 낮은 사람에게 高血壓이 많다는 지금까지의 西歐的 通說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해 전국 4백23개 마을에 거주하는 9천6백1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의 性別·年齡別로 본 高血壓분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血壓분포와 일반적으로 거의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高血壓 有病率은 男女 다함께 全年齡에서 美國人보다 낮았다는 것이다. 즉 세계보건기구(WHO)가 定義한 高血壓(수축기 1백60㎜/Hg 이완기 95㎜/Hg)은 30세 이상 男子의 14%, 女子의 경우 9·8%의 有病率을 나타냈다.

또한 高血壓 有病率은 性別에 관계없이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有病率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나이에 관계없이 남자의 有病率이 女子보다 높았다.

그리고 高血壓은 수축기와 이완기로 나눠 분석하면 弛緩期高血壓의 유병률이 收縮期보다 남자의 경우 3倍, 여자의 경우 2·5倍나 높아 이완기고혈압은 남자의 경우 49세까지 증가한반면 여자에겐 69세까지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수축기고혈압은 일반적으로 낮아서 70세이상의 인구에서도 25·5%수준 이었다.



◇韓國人의 경우엔 짜게먹는것이 高血壓과 별 관계가 없다는 학설이 나와 이채를 띠고 있다.

교육·경제수준 낮고 육체노동자에 많다는 從來說에 正反對
일부에선 '좀더 力學的인 要因분석 필요하다'고 수긍않아

그러나 金교수는 이번 조사에서 社會·經濟的인 變數에따른 血壓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大都市에 거주하는 사람의 혈압이 지방거주자보다 높았으며 年齡이 증가할수록 지역간의 격차가 컸으며 ▲北部地方출생자가 南部지역보다 뚜렷하게 혈압이 높았고 ▲70세이상을 제외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平均血壓이 높고 ▲精神근로자가 육체근로자보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사람보다 血壓이 높았다는것. 그러나 여자의 경우엔 대체로 이들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金교수는「이런 要因을 분석할때 西歐에선 교육수준이 낮거나, 가난하거나, 육체노동을 하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血壓이 높은것으로 믿고 있으나 이번 연구에선 전혀 반대의 양상을 얻어낼수 있었고 通說로 여겨져온 鹽分섭취량과 高血壓관계의 假說을 받아들일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北部지방출신이 南部지방보다, 都市人이 지방사람보다 일반적으로 염분섭취량이 적은 것으로 보는데 血壓은 반대로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대체로 이번 血壓조사가 전국을 상대로했고 社會·經濟的인 要因까지 분석했다는 점에서 예방의학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으나 염분섭취량과 고혈압이 무관하다는 假說은 수긍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漢陽醫大 高應麟교수(예방의학)는 『高鹽食의 禁忌는 高血壓환자에게 가장 먼저 인지시켜주는 중요한 처방』이라고 전제하고 南北間의 出生地를 구분하기 곤란한 현실에서 南北間의 食生活양상을 血壓要因과 연결시킨것은 의미가 없을것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順天鄕醫大 南潤昇교수(건강관리)도 『血壓의 증가원인은 어떤 특정한 要因을 지적해낼 수 없을만큼 다양하다』고 말하고 나타난 결과에 만족할것이 아니라 좀더 여러가지 요인에 대한 역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집 人民없는 金日成王朝

아비와 아들이 서로 찧고까불고 人民을 우롱
「세습후계」 자유世界선 「웃기는 작난이다」

金日成 죽은뒤에 神格化 유지될지 疑問
朝總聯 내부마찰일자 충성맹세 誓約받고

후계제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해 보였다.

즉 「소련·中共 등은 후계자를 사전에 정하지 않았으므로 스탈린이나 毛澤東이 죽은 뒤, 국내에서 혼란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혼란을 방지하는 의미에서 후계자를 결정해두는 편이 좋다」「수령의 후계는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수령의 영도 아래 진행되는 혁명투쟁은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 세대를 거쳐 완성되는 것이다」운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金日成은 3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의 一族을 완전히 「神聖家族」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金日成이 생물적인 법칙에 의해 갑자기 죽게될 경우, 그 「신성가족」이 과연 최후까지 보증될것인가? 현실적으로 저 유명한 스탈린의 딸조차 적국이었던 미국에서 최저의 생활을 하면서 생존하고 있지 않은가.

숙청에 숙청을 거듭, 수라장 속을 헤쳐나온 金日成은 누구보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더욱 세습후계제를 서두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의 의문이 있다. 「神格」의 金日成이 죽은 뒤 제2대째를 이어받을 「수령」이 과연 「神格」을 유지할 수 있을는지 아무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단계에 있어 「分派주의」「지방주의」「가족주의」「종파주의」등의 「딱지」를 붙여 일단 반대파와 반대한 가능성이 있는 싹까지 솎아버렸으므로 당분간은 평온할지 모른다. 그러나 독재국가에서의 「평온」은 역사적으로 보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史實로써 증명되었다. 그러나 金日成은 조총련 의장 韓德銖에게 세습후계의 국제적인 「認知劃」을 하루 빨리 시작하도록 불같이 재촉한 것은 북한 소식통이 한결같이 인정하고 있다.

조총련조직의 간부들을 북한에 불러 일본의 매스컴에 金正日이 후계자임을 빨리 발표하도록 계속했다는 사실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조총련 간부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의 세습체계에 대해 명확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표시하지 않았던 사람들, 또 일단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믿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조총련 본부의 간부를 비롯해, 각급 기관, 지부 이상의 간부, 산하단체, 사업체 간부, 그리고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상공인, 기타 지도적 인물)에 대해, 최후의 수단으로서 學習組를 통해, 金正日에 대해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시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요(1977년 10월)하거나 혹은 북한 로동당이 이들 간부급 사람들을 직접 호출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金正日 동지를 우리의 지도자로서 무조건 추대하고 그 현명한 지도에 절대 복종하겠읍니다」라는 결의문까지 서명시켰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밟아온 조총련 본부는 1977년 2월 2일, 3일 이틀간에 걸쳐 「특별간부강습회」를 개최하고 金正日을 金日成의 유일한 후계자로 하기 위한 「북조선 당국으로부터의 지시」를 참가한 간부들에게 전달했다.

이어서 조총련본부는 매년 2월 26일, 金正日의 탄생축하집회를 각 기관, 산하단체 등에서 개최한 것을 통지함과 동시에 조총련본부는 「중앙회관」에서 축하회를 개최했다.

533 2361

■本格化되는 金正日讚辭

金正日에 대한 「찬사 창작극」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다.

조총련 기관지 「朝鮮新報」(한글版)는 금년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15회에 걸쳐 金正日 특정호인 「嚮導의 빛」을 연재했는데, 거기 게재된 장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金日成주석 降仙에의 갈림길

「…1945년 10월의 어느 날 위대한 수령 金日成 원수는 降仙의 노동자와 만나기 위해 평양을 떠났다.」 降仙으로 가는 도중 수령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萬景臺가 있다. 그리고 그 만경대에는 수령의 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인 수령이 찾아오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수령은 만경대로 가는 갈림길에서 부관에게 〈나중에 찾아뵙겠읍니다…〉라고 전하도록 이르고, 일로 降仙으로 향했다」(조선신보 1981·1·19일字「향도의 빛」②)

◎金正日 溫城에의 갈림길

「1974년 봄 〈영광에 빛나는 黨中央〉은 함경북도 溫城에서의 건설사업을 지도하기 위해 열차로 현지로 떠났다. 溫城에 가려면 會寧을 통과하게 된다. 會寧지역의 사람들은 새 옷을 입고 삼삼 오오 역에 모여들었다. 金貞淑 여사와의 인연을 생각해서〈영광의 黨中央〉은 반드시 會寧에서 하차 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차는 會寧역에 정거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고 말았다. 〈영광에 빛나는 黨中央〉은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하루라도 빨리 실현시키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선신보 「향도의 빛」⑤)

다음은 자애로운 지도자像에 대한 것이다.

【金日成】 1955년 11월말의 추운날 새벽의 일이다. 〈인민들이 추위에 떨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위대한 수령 金日成 원수님은 새벽에 부관을 데리고 어느 집을 방문했다. 그러나 그 집 사람들은 아직 자고 있는 모양이었다. 부관이 그 집 주인을 깨우려 하자 위대한 수령님은 〈주인은 지금 곤하게 자고 있는 모양이다.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면서 찬바람 몰아치는 밖에 서서 기다렸다」(조선신보 1981·1·23「향도의 빛」④)

【金正日】「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78년 12월의 어느 새벽, 〈영광에 빛나는 黨中央〉은 위대한 수령님이 방문했던 같은 집을 방문했다. 그 날은 20년전 위대한 수령이 방문했을 때보다 몇배 추운 날이었는데도 그 집 처마밑에서 찬바람을 마다 않고 그 집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향도의 빛」④)

【金日成의 낚시】「1939년 가을 오르기江 (소재 불명) 에서 낚시를 하면서 일제 침략자에 대한 섬멸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작전을 짰다」(조선신보 1981·1월·26「향도의 빛」⑤)

【金正日의 낚시】「무포에서 낚시를 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定式化한과 동시에 金日成주의를 인류의 귀중한 재산으로 만들기 위해 깊은 사색에 잠겼다」(조선신보 1981·1·26「향도의 빛」⑤)

"歷史의 主役은 人民이아니라 首領…" 괴변
金日成 언젠가 人民의 嚴肅한 審判받아야

1945년 8월 15일을 맞아, 金日成은 평양으로 왔으나, 이미 말했듯이 「소련」이라는 배경 이외에는 그를 지지해 줄만한 기반이 북한에는 없었다. 그래서 귀국 초기에는 국내에 기반을 갖고 주민들과 밀접한 유대를 가진 「國內共産主義者」와 협력하든지, 혹은 그들을 이용하면서 자기 기반 확립에 부심했다.

그리고 나서는 「협력해 왔던」 동지들을 여러가지 명목을 붙여 숙청, 제거해 버렸다.

한편, 「제2대 수령」으로 옹립된 金正日이 최초로 시작한 「작업」은 당원과 일반주민에 대해 金日成을 「神格化」하고 「절대화」하는 명령이었다.

또한 「黨中央」(金正日 자신을 가리킨다)의 권위를 강화하고 「黨中央」을 생명을 바쳐 死守하지 않으면 안된다」(조총련 학습조의 의무 10대원칙)는 봉건 국가의 군주 못지 않은 절대적인 지시를 버젓이 내리고 있다.

한편 金日成은 金正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3大革命」을 절찬했다. (1980년 10월 10일~14일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의 金日成 총괄보고문 ① 3대혁명의 빛나는 승리)

아비와 아들이 서로 찧고 까부롭하듯이 칭찬하고 찬양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격이다. 자유세계에서 볼때는 그야말로 「웃기는 장난」이 아닐수 없다.

金日成·金正日 부자의 이와 같은 連動的인 상호 찬양을 볼때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금할 길 없다.

심지어 북한에서는 「역사창조의 주체는 위대한 수령에 의해 진행된다」(조총련 학습자료)고 하며 「인민」들의 역할까지 부정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人民」이 주체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또 역사의 원동력인 것이다. 「人民」이 역사창조의 주인공이며 원동력이라면, 그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金日成은 어느 날엔가 반드시 「人民」들의 엄숙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龍宮慶二(評論家)

(日本 文藝春秋社發刊 「諸君!」 6月號에서)

제2의 車範根 노리는 RW 邊炳柱

11회 대통령컵 蹴球
첫 데뷔전서 클로스 업된 新人선수

제11회 대통령컵국제축구대회는 한국축구대표팀이 보유하고 있는 후보선수 혹은 2진선수들의 능력을 재평가할수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주전선수들의 연달은 부상으로 중요한 포지션에 전격기용된 이들 신인, 혹은 후보선수들은 그들 자리의 원주인 못지않은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다.

RW에 기용된 邊炳柱(21·延世大), 스토퍼로 된 權五孫(22·서울市廳), RF에 차출된 朴景勳(21·漢陽大)등이 보여준 활약은 뜻밖이라고 할만한 일이었다.

◇車範根 이래로 가장 능동적인 RW로 클로스업된 邊炳柱. (사진·徐鍾道기자)

花郞에는 믿을만한代打가 없다고 믿고있던 일반팬들이 『아니 저정도로 할수 있는 후보선수들이 있었나』하고 놀란것은 말할것도 없고 한없는 고민끝에 궁여지책으로 이들을 내보낸 金正男·金鎬坤 코칭스태프도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놀라운 일을 해낸 이들 신인들도 실은 스스로 더욱 놀라와했다.

모두가 놀라와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그들을 잘 몰랐다는 사실을 대변해주는 일이다. 팬들도, 코칭스태프도, 선수자신들도 그들의 능력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주전선수들은 누구와도 대체될수 없는 확고한 실력을 갖고 있으며 신인이나 후보선수들은 모든것이 미흡한 선수라고 지레짐작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대통령컵국제축구대회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관의 오류를 통렬히 지적해준 바탕이 되었다. 레귤러선수와 후보선수간의 차이란 매우 미세하며 자전이나 컨디션여하에 따라 후보선수가 오히려 나올수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花郞이 신인을 기용, 최고의 성과를 거둔것으로 邊炳柱의 예를 들수있다. 邊은 작년12월 대표선수로 뽑힌후 지금까지 대표팀의 밥을 먹기는 했으나 게임에는 한번도 기용되지 못한 서러운 후보선수였다.

車範根이 78년에 서독으로 간뒤 花郞은 마땅한 라이트윙(RW)이 없어 항상 전전긍긍해왔다. 한때는 申鉉浩를 써보았고 그 후로는 李正日을 썼다. 지난4월의 월드컵예선때는 李正日이 부상으로 출전할수 없게되자 링커인 趙廣來를 써보기도 하고 李太燁을 등장시키기도 했다. 이상에 열거된 모든 선수들은 대표팀 RW로서 이번의 邊炳柱만큼 코칭스태프를 흐뭇하게 해주지 못했었다.

先入觀무시 과감히 起用
주전선수 빰쳐 팬들 놀라

花郞의 코칭스태프는 RW문제로 항상 고민하면서도 邊을 써보는 것은 논외(論外)로 했다. 두 金코치는 『邊은 아직 안됐다』는 깊은 선입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쓸수없다던 邊이 결국 기용되게 되고 그 기용이 성공을 거둔 결과가 묘하다.

이번 대통령컵 국제축구대회를 앞두고 실시된 花郞의 합숙훈련에는 많은 선수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빠져 정상적인 훈련이 될수 없는 실정이었다. 趙榮增과 金黃鎬는 해외프로선수가 되려고 팀을 떠나 버렸고 할렐루야선수들은 홍콩으로 원정갔으며 또 여러선수들이 국내경기출전관계로 연습장에 나오지 않았다.

花郞의 연습장에 모인 선수는 많아야 13~14명정도였다. 사정이 이러하니 연습에서나마 신인이 주전이 되고 후보가 정규선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 邊은 이 연습에서 RW로 기용되어 날쎈 드리블과 잽싼 슈팅으로 두 金코치에게 자꾸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두 金코치는 『아쉬운대로 邊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邊이 花郞의 RW가 된것은 그에게는 횡재라고 모두들 생각했으나 邊은 대통령배대회에서 그가 유능한 공격수임을 증명해 보였다. 邊은

날쌘 드리블·잽싼 슈팅등 순발력 뛰어나
예선전서 最多得點, 라이트 윙자리 굳힌듯

花郞의 첫경기인 샤토루(佛)와의 대결에서 한국의 선제골을 넣어 한국의 패배를 구제한 수훈을 세웠다.

그러나 邊은 이 경기에서 한국의 선제골을 넣고도 4~5개의 결정적인 찬스를 득점에 연결하지 못한 실수를 범해 『주전선수이자 승리를 확정짓지 못한 패인자』란 상반된 2가지 평가를 받았다.

샤토루와의 경기는 邊의 대표선수데뷔전이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국의 모든 찬스가 邊에게서 생겨났다. 축구에서 찬스를 많이 맞는 선수는 공격의 중심선수이거나 위치선정에 능한 선수란것을 설명해주는 일이다. 그때까지 邊은 공격의 중심은 아니었던 만큼 邊이 위치선정에 능하고 다른선수보다 기민했다고 해석해야 될것 같다.

『평소 연습한대로 움직이니까 찬스가 많이 생겼어요. 많은 찬스를 놓쳐 내가 미숙하다는 생각에 빠져 많이 고민했읍니다. 조금더 침착하면 되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읍니다.』

邊은 大田에서 열린 서독 자르보뤼켄과의 경기에서는 2골을 넣어 한국의 4-1승의 대수훈선수가 되었고 말레이지아와의 3번째 경기에서는 어시스트에서 대활약을 보였으며 예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임인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와의 대결에서 동점골을 터뜨려 1-1무승부를 만든 최고의 활약을 보였다.

『두번째 게임에서부터는 자신이 붙었읍니다. 생각대로 플레이가 되고 길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라고 邊은 말했다. 邊은 원래 순간 동작이 빠른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 대표팀에서도 이 빠른 스피드를 밑천으로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 그는 1m74㎝의 키에 체중 66㎏의 날렵한 몸매이며 1백m를 11초7정도로 달리는 좋은 스피드를 갖고있다.

邊은 특히 5m 혹은 10m 등의 매우 짧은 거리를 빨리 달리는 순발력이 뛰어나다. 축구는 육상경기가 아니므로 짧은 거리에서 빠른 스피드를 보이는 것이 더 필요하다. 邊은 빠른 스피드를 교묘한 드리블과 번개같은 슈팅으로 연결, 찬스에 강한 특징을 보여주었다.

邊은 예선에서 4골을 넣어 한국의 최고득점선수가 되었다. 『나의 득점중에서 코르도바에게서 뽑은 동점골이 가장 값진것이었읍니다. 그러나 기억에 남는 득점은 서독과의 게임에서 넣은 두번째 골인것 같습니다. 廣來형의 패스를 가슴으로 받아 머리로 넘겨 골인시켰는데 그런 장면에서 또 그렇게 할수 있을것 같지 않아요』라고 邊은 말했다.

邊은 대표팀에서 축구로서는 드리블과 슈팅판단이 좋은 丁海遠을 제일 존경하고 인간적으로는 하루에 4차례씩이나 훈련을 하는 [illegible]을 존경한다고 털어놓았다.

邊은 그자신의 단점은 시야가 좁고 볼을 빨리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스스로 평했다.

邊은 경기도 파주군 교화면 출신으로 교화중 3학년때부터 축구를 시작, 靑丘高를 거쳐 현재 延世大2학년 재학중이다. 靑丘高3년때 문교부장관배대회에서 최우수 및 최다득점상, 대통령금배대회에서 최다득점상을 받았으며 지난5월의 延世大선수로 인도네시아 메다하림컵 대회에 출전,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權五孫과 朴景勳도 邊炳柱와 비슷한 사연으로 대표팀의 주전이 되어 성공을 거두었다. 朴景勳은 대표팀은퇴를 선언한 崔鍾德대신에 들어섰고 權五孫은 대표팀의 슈퍼스타인 朴成華가 부상을 입은 바람에 이 자리에 들어왔다. 權은 무서운 태클과 과감한 몸처리로 칭찬을 받았다. 선배들이 잠깐 말을 놓은 자리에서 큰일을 하고있는 이들 신인 선수들. 이들이 결국 선배들을 완전히 누르고 그 자리의 주인이 될것은 거의 확실하다.

〈日刊스포츠 [illegible] 기자〉

防虫網치고 주위의 웅덩이 메워야

가정위생을 위한 여름害虫 박멸요령과 防疫대책

파리·모기·바퀴벌레등 각종 여름해충이 극성을 부릴 때다.

뇌염·장티푸스·이질·콜레라등 여러가지 질병을 옮기는 해충 박멸을 위해 각가정에서는 방충망설치를 비롯, 웅덩이 메우기, 약제산포등을 서둘러야겠다.

가정위생을 위한 해충박멸요령을 알아본다. 기온이 올라가면 겨우내 동면해있던 각종 해충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특히 밀집지역인 아파트에서는 바퀴벌레가 들끓을 때이고 단독주택의 경우도 모기·파리등이 극성을 부리게된다.

대표적인 여름해충인 모기는 크게 일반모기·뇌염모기로 구분되는데 이들 모기의 대부분은 일몰시부터 밤에 나타나 각기 흡혈·교미·산란등의 활동을 한다.

이들의 행동은 광선·온도·습도에 의한 기상조건의 영향이 크며 수컷의 경우 식물의 이슬이나 액즙등을 빨아먹는데 비해 많은 종류의 암컷은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다.

혈액중의 단백이 알의 성숙에 필요하기 때문.

흡혈시는 주둥이를 상대의 몸에 찔러 피를 빨아먹는다. 흡혈시 혈액이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타액이 주입되는데 이것이 가려움증·종양등의 원인이 되며 병의 감염을 일으킨다.

뇌염을 옮기는 뇌염모기는 얕은자세가 뒷몸체를 위로 더 높이 치켜들고 앉으며 주로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뇌염을 발생시킨다. 뇌염예방을 위해서는 뇌염예방주사접종과 뇌염모기에 노출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예방접종은 60%이내밖에 면역성이 없으므로 최선의 방법은 모기를 박멸시키는것이다.

이질·장티푸스·파라티푸스·콜레라등을 옮기는 파리 또한 무서운 여름해충의 하나다.

이 벌레는 한쌍의 발달한 날개를 갖추고 있으며 입은 아래로 뾰족하게 나와서 무엇을 핥거나 쏘기에 알맞게 되어 있다.

여름철에 가장 성하며 음식이나 식기등에 병균을 옮겨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피부병의 원인이 되는 독나방도 조심해야될 해충의 하나로서 주로 밤중에 불빛을 따라 이동을 하여 사람을 쏘는등 해를 끼친다. 특히 유충때 60만개가량의 독침을 털에 지니고있는 명강나방은 몸에 닿았을때 긁거나 문지르면 독침이 몸에박혀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가려우며 눈에 닿으면 염증이 심하게 나타난다. 명강나방이 몸에 닿으면 얼른 비눗물로 닦고 가렵기 시작하면 얼음찜질을 하도록 한다.

어둡고 밀집된곳을 좋아하는 바퀴벌레도 찬장이나 하수구등에 돌아다니면서 각종병균을 옮긴다. 한번 끼기 시작하면 걷잡을수없을 정도로 퍼지기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 정기적인 소독이 필요하다.

이상 여러가지 해충을 박멸하기 위해서는 잡벌레의 근원이 되는 웅덩이등을 메우거나 약제를 살포하고 모기등의 침입을 막기위한 방충망설치등이 필요하다.

또 밤에는 쓸데없는 불을 꺼 잡벌레들이 모여들지 않게하고 하수구·화장실·쓰레기통·부엌개수대등의 철저한 소독이 있어야한다. 그리고 벌레가 들어왔을때는 시판중인 각종 약제를 구입, 그때 그때 박멸토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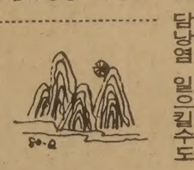
健康진단 〈便 秘〉

宿便괴면 담낭염 일으킬수도

변비란 변이 굳어지고, 횟수도 줄며 분량도 충분하게 나오지 않는 상태다.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한두번, 때로는 이틀에 한번 변을 보는것이 보통이다. 날마다 변을 보더라도, 배속에 변이 괴어있는 경우라면 변비라고 한다. 그처럼 장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변을 宿便이라고 한다.

변비는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 하루에 한번 변통이 없으면 머리가 무거워지거나 초조해지는 사람도 있다. 1주일 동안이나 뒤를 안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다. 그렇듯 자각증상이 없다고해서, 몸에 장해가 없는것은 아니다.



숙변이 배속에 괴어 있으면 변을 보기가 어려워진다. 그런때 안간힘을 쓰면 혈압을 올려주기 때문에 고혈압자의 경우에는 뇌출혈의 도화선이 되기도 한다. 치질인 사람은 출혈을 일으킨다.

변비가 있으면, 본래 장안에서는 해독이 없던 대장균이 膽囊에 들어가서 「담낭염」을 일으키는 수도 있다. 여성의경우에는 尿道와 방광이 항문과 가깝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방광염이나 腎盂炎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①쾌변을 위해 가장 알맞는 시기는 아침 식후다. 밤사이에 배설물이 배에 괴어있고 아침 식사로 胃가 부풀었으니 大腸이 활발해지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아침 식후에 변소에 가는 습관을 들이자.

②변통에는 마음의 상태가 크게 작용된다. 그러므로 쾌변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느긋한 안정감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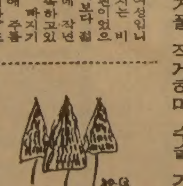
충분한 배변을 위해서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는 안된다. 태평스런 마음으로 변을 볼 수있는 것도 행복의 조건이다.

呂卿九 (醫博·東南醫院長)

成形상담 〈눈 등 弛緩〉

쌍거풀 작게하며 수술 가능

問 42세된 여성입니다. 얼마전까지는 비교적 퐁퐁한 편이었으나 실제 나이보다 젊은편이었읍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배드민턴을 계속하고있는데 그때부터 몸이 빠지기 시작하고 특히 얼굴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읍니다. 또 저의 눈은 원래 쌍꺼풀이었으나 최근에는 쌍꺼풀이 없어지고 눈등 피부가 처지면서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 보입니다. 쌍꺼풀은 원하지않으나 늘어진 부분만 제거하면 먼저의 형을 유지할 것 같은데 이것은 저의 욕심인지요? (종로4가 경숙올림)



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복잡하고 신경이 쓰이는 수술을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 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흔히 쌍꺼풀을 원하며 이왕에 늘어진 피지를 제거함과 동시에 굵지않고 얄팍하게 쌍꺼풀을 원합니다. 수술시 소위 절제선을 택하는데 있어서 쌍꺼풀을 원하면 절제선이 후에 쌍꺼풀 선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자르는 선을 아주 얇게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쌍꺼풀은 나타나지않고 늘어진 피부만을 제거할 수 있으나 본래의 쌍꺼풀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힘들고 그 선을 이용하여 절제선을 택해야 될것 같습니다.

절제할 때는 피부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주위의 여러 조직도 제거합니다. 그런데 중년부인들의 눈 수술의 경우는 20대와 같이 피부에 탄력이 적어서 임상에서 종종 절제선에 이상이 오는 경우가 있읍니다.

전문의와 협의후 결정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쌍꺼풀을 작게 하면서도 늘어진 피부의 제거도 가능합니다.

李秉遠(醫博·종로의원장)

스포츠하이라이트 스포츠하이라이트

이것이 한국의 곰과 熊膽의 세계다

卷末特輯

廣州곰 野生곰일까 飼育곰일까

누이좋고 매부좋은 아리송한 結論

全國의 視線을 集中시킨채 말썽을 부리다 무참하게 射殺된 廣州곰의 웅담이 1천6백만원에 팔렸다. 그 엄청난 가격으로해서 廣州곰은 또하나의 話題를 낳았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곰은 죽어서 웅담을 남기는 것일까? 웅담은 예부터 神秘한 藥으로 전해졌고 현재도 진짜 野生곰의 웅담이라면 천만원대를 호가, 그것도 물건이 없어서 못팔정도다. 더 더욱 놀라운 것은 곰사냥이 엄격히 금지된 현재에도 곰사냥꾼이 엄연히 존재해 있고, 年 5마리정도의 野生곰이 이들에 의해 은밀히 잡힌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市中에서 거래되는 웅담의 「진짜」여부는 90% 「否」쪽에 기운다고—. 곰사냥의 근거지인 雪嶽山·智異山 현장과 서울·漢方街 주변을 파헤친 深層 르포—.

곰은 神秘한 효능을 지닌 쓸개의 藥效때문에 귀한 動物로 대접받고 있다. 그런데 그 쓸개의 藥效는 野生곰의 경우에서만 眞價를 발휘한다. 飼育곰이라든가 海外서 들어온 輸入곰의 쓸개는 시쳇말로 〈별볼일 없다〉는 말도 들려온다. 이번 廣州에서 소동을 부린 곰에 관해 〈그것이 野生이냐 飼育이냐〉하는 論爭을 불러일으킨것도 그러한 연유때문이었다. 과연 廣州곰은 野生곰일까 飼育곰일까?

深層르포

李勇昌 (전 言論人)

第1話

〃飼育곰도 野生곰化〃어디서 나온 學說인지

바로 작년 가을에 日本의 어느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다. 갑자기 한마리의 호랑이가 여기 저기에 출몰했다. 경찰력이 동원되어 호랑이잡기 소동이 벌어졌다. 한달만에 호랑이는 잡힐 수 밖에 없었다. 감정결과 이 호랑이는 사육호랑이로 판명되었다. 사육호랑이로 판명된 이상 호랑이의 주인찾기가 다시 전개되었다. 급기야 호랑이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도 밝혀졌다. 호랑이의 주인은 어느 寺刹의 僧侶였다.

경찰이 이 승려를 다그치자 그는 얼떨결에 이렇게 말했다.

「아니, 내가 호랑이더러 우리를 뛰쳐나가라고 했습니까? 제가 제발로 뛰쳐나가겠다는 걸 어떡합니까?」

이 촌극이 매스컴에 발표되자 여론은 남비에 물끓듯 했다. 소위 聖職者가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 있느냐는 삿대질이었다. 호랑이 임자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사과의 글을 실었고, 호랑이에게 피해를 본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3개월동안 떠들썩했던 호랑이 소동은 막을 내렸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번 우리나라의 廣州「곰」소동도 日本의 호랑이 소동같이, 그 순서대로 진행되고, 그 순서대로 막을 내렸어야 했을 것이다.

그랬으면 뒷맛이 개운한 일단락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경찰이 마취총까지 준비했으나 마지막 발견당시 상황이 너무 급박해 어쩔수없이 사살을 한것까지는 불가항력이었다고 치자.

「곰」소동이 엉뚱한 방향으로 일단락되어 지기 시작한 것은 사살된 곰의 鑑定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문제는 판정이 사육곰이면서 곰이 우리를 나왔다고 판정되면 감독관청은 크건 작건간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물론 사육자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물론 파손에 대한 처벌, 법규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번 廣州「곰」의 판정이 사육곰도 아니고 야생곰도 아닌 어정쩡한 곰으로 낙착이 지어진 것은, 결과적으로 볼때 누이좋고 매부좋은 것이 되었다.

이 누이좋고 매부좋은 판결이, 서로의 골치를 덜기위해 의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누가 단정할수 있을 것인가.

오랫동안 산삼및 웅담을 연구해온 任應鉉씨(40·한의사)는 이번 廣州곰은 틀림없는 사육곰이라고 단언하고 나선다.

앞에 비쳤듯이 生態學的으로나 生態群的으로 보아도 廣州일대에 야생곰이 서식할리가 만무하며 역사적인 기록, 지자생존에 의한 사료분포 상황으로 보아도 야생곰일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야생곰이란 원래 사람을 보면 피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습성이라는 것이다.

한 겨울에 농락한 포수도 접근키 어려우며, 곰은 사람을 발견하면 여유있게 뒤돌아보며 도망가는 그런 짐승이라는 얘기.

그런데 廣州곰은 사육곰답게 사람에게 자주 접근을 시도했으며, 사람을 발바닥으로 때리지 않고 입으로 물었을뿐이다. 곰의 최대의 공격은 앞발로 때리는 것이지 결코 무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수렵금지 전에 雪嶽山, 五臺山일대에서 곰사냥으로 생계를 이어온 많은 포수들은 모두들 이 곰이 사육곰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웅담을 볼 필요도 없이 TV의 화면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廣州곰이 사육곰이라는 점을 뒷받침해주는 것에는 컬러TV도 한몫을 단단히 해냈다.

손수 7마리의 야생곰을 잡아보았고 2백여마리의 배를 갈랐다는 安德洙씨(53)는 이렇게 말한다.

「보셨죠? 온몸의 털이 길고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야생곰은 털이 짧은법이에요. 더구나 궁둥이털은 모질고 짧습니다. 왜그런지 아세요? 대체로 앉아서 지기 때문입니다.」

安씨는 TV에서 보니까 주둥이가 몽롱하고 입술이 두껍고 눈이 커서 사육곰의 특색을 辭典처럼 간직하고 있더라고 말한다.

컬러TV로 보니까 더욱 잘 알겠더라는 얘기다. 발바닥이 짙은 회색이 아니고 회색이 비치는 것도 역력하더라고한다.

雪嶽山의 산돌이로 20여년 명성을 떨친 金在萬씨(57)도 단적으로 廣州곰을 사육곰이라고 말했다.

智異山이나 雪嶽山, 香爐峰, 五臺山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겠느냐, 버스를 타고 왔겠느냐는 반문이다.

金씨는 야생곰의 특색으로 목부분의 털이 길고 발바닥의 가운데가 깊고, 엉치에 때가 박혀 크고, 비교적 살이 빠져있고, 발톱의 길이가 짧다는 것들을 들고 있다.

산림청의 결론으로 다시 돌아가보자. 검사원들은 발톱이 예리하여 야생곰이라고 우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일부 사육가들이 사육곰을 야생곰으로위장하여 팔기위해 발톱을 줄같은 연장으로 예리하게 갈아주는 사례가 많다는것을 상기할 필요가있다.

또 털이 닳고 지저분하다고 하여 야생곰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직 상반된 견해가 엄존(嚴存)하는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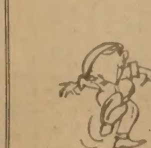
오히려 昌慶苑의 金正萬씨는 이렇게 반대얘기를 하고 있다.

「불곰이고 반달곰이고 야생곰은 발톱을 많이 쓰기때문에 발톱 자체가 짧고 下向性인게 특징이다. 이와반대로 사육곰은 발톱을 많이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길고, 좁은 우리에서 자주 앉거나 뒹굴어 털이 곱지 못하다.」

그렇다면 발톱과 털의 상태로 야생곰이라고 단정을 한 것은 경솔한 면이 없지않아 있는 것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아리송한 判定때문에 보상을 못받게 되는 사람은 결국 곰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다. 곰의 임자를 他意에 의해서 놓쳤기 때문이다.

또한 사육곰을 야생곰이라고 오판했다고 단정할 경우 이 곰을 산 사람은 그만큼 재정적인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廣州는 곰의 서식처가 못돼

곰專門家 飼育곰으로 단언

사육곰이고, 야생곰이면 야생곰인 것이다. 그런데 그 논쟁이 아리송했다. 사육곰이 1~2년 야생하면 야생곰이 된다는 이치는 어디서 나온 학설일까?

책임검사원은 산림청에 낸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육을 한 흔적은 확인할만한 특징은 없다. 다만 발톱끝이 전체적으로 예리하고, 털끝이 닳은것으로 미루어 야생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곰은 굴착성 발톱을 갖고 있어 사육곰은 발톱이 사육장의 콘크리트 바닥에 마모돼 날카롭지 않으나 야생곰은 날카롭다는 것이며, 사육곰의 경우 털이나 피부가 고우나 야생곰은 가시덤불등에 긁혀 털이 윤택하지 않고, 피부도 거칠다는점등을 들어 야생곰이라고 결론을 지은 것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사육곰이 우리를 나온지 오래되면 야생화 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니까 이번 廣州「곰」은〈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 곰〉이 되어버렸다.

여기서 역설적으로 얘기를 전개해 나가자.

이번에 廣州에 나타난 곰이 완전한 야생곰이라고 결론을 내린다고 보자.

이렇게 되면 이는 조수학계에 異變이 생긴 꼴이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이래 廣州가 곰의 서식처라고 들먹여진 적은 한번도 없기 때문이다.

많이들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白頭山을 중심으로 咸鏡道와 平安道에 불곰이 살고 있고 남쪽에선 雪嶽山과 智異山에서 반달 곰이 서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京畿道에도 반달 곰이 서식하고 있다면 곰의 서식판도가 바뀌는 획기적인 이만저만 큰일이 아니다.

또, 廣州에 야생곰이 산다고 하면 곰의 生態學的인 면에도 큰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 그동안의 곰의 生態는 단적으로 高山動物이었다.

수렵금지 전까지만해도 곰사냥을 전업으로 살았던 포수들의 공통된 견해는, 야생곰은 산의 7부능선이하로는 내려오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廣州일대에는 南漢山을 비롯하여 몇개의 낮은 산(해발 600m내외)이 있을뿐이어서 7부, 8부능선을 따진 처지도 못된다.

더구나 곰이 서식할만한 곳 천연적인 먹이가 빈곤한 곳이다. 천연적인 먹이가 근원적으로 빈곤한 低山地帶에도 곰이 산다는 학설, 이것은 골치아픈 새 學說일수밖에 없다.

廣州「곰」을 야생곰이라고 판단을 내린다면 이 골치아픈 學說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반면에, 이번 廣州「곰」이 사육곰이라고 단정을 내렸다고 치자. 이렇게 되면, 이번엔 學界가 아니라 행정당국과 경찰력에, 비상이 걸릴수밖에 없다.

사육곰인 바에야 그 곰의 주인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디 주인을 찾는 일이 쉬운 일인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곰을 기르는 농장은 약20개소에 92마리인 것으로 비공식 집계가 되고 있다. 지역적으로 보면 京畿道 지방만도 16개소나 된다는 것이다. 곰은 주로 말레이지아·泰國·日本·버마등지에서 수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정한 사육시설만 갖추면 산림청이 수입허가를 내주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74년이후 곰을 많이 수입해오는 추세이다. 문제는, 그동안 들여온 곰들이 많은 새끼를 번식시켜 분양되었기 때문에 수입실적만으로 곰의 숫자추적이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설혹 새끼의 분양이 아니라도 도살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숫자추적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곰의 임자를 찾는다는 것은 高度한 수사력에 의존하거나 광범한 수사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때 廣州곰이 사육곰이라면 우선 곰탕을 먹는 것이 우리의 경찰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경찰 다음으로 골치를 앓을 곳은 곰사육을 지도감독하는 행정관청이다.

野生곰으로 判斷내린다면 골치아픈 새學說감수해야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입허가재의 시설기준(3마리기준)은 우선 운동장 30평, 분만실 13평, 수조 2평이상등 사육장 넓이가 43평이상이 돼야하고 도망가지 않도록 철근 콘크리트로 지붕과 담을 쌓아야 하도록 되어있다.

또 철책은 2.5cm 두께의 둥근쇠막대기를 7cm 간격으로 세우고 그 위에 철망을 덮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정시설을 지키지 않아

산돌이들 〃컬러TV봐도 飼育곰 틀림없다〃

野生判定에 被害者만 골탕…비싸게 팔리고

요즘 사육곰의 시세는 4백만원에서 6백만원정도이다. 그것도 이번 廣州 곰처럼 3~4년생이 아니고 10여년 된 것이 그렇다. 이 시세로 따진다면 이곰은 엉뚱하게 비싼값에 팔린 꼴이되는 것이며 이를 산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自費에 의해 보게되는 것이다. 1천6백만원에서 1백원 모자란 값에 廣州곰이 팔린 까닭—이것은 야생곰이라고 결론을 내려준 검사원들의 판정때문이다.

물론 믿을만한 검사원이 야생곰이라고 단정을 내려주는 바람에 치열한 경매가 이루어졌다.

이 곰이 진정한 야생곰이라면 웅담의 가치로보아 비싼값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사육곰이 야생하면 야생곰과 같은 약효의 토웅담으로 변하느냐하는 문제가 남는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여기에 대한 대답은 신통치가 않다.

토웅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다.

「사육곰은 산에서 백년 있어도 토웅담이 안된다.」

물론 사육곰의 웅담도 약효는 어느정도 있을 것이다. 그뿐이랴. 모든 동물의 쓸개치고 약효가 없는 것이 없는 법이다.

다만 사육곰의 웅담은 그 곰이 야생이 된다해도 토웅담이 안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약효가 무척 약하다는 점이다. 그저 몸보신용 웅담은 될망정 중환자의 치료용인 강력웅담은 못된다.

그렇게 볼때 廣州곰의 웅담이 과연 1천6백만원어치의 값어치가 있을 것인가.

이번 廣州곰의 경쟁입찰에 뛰어든 사람중의 일부상인들은, 이 곰이 사육곰이며, 결국 웅담의 약효도 신통치 않을 것임을 알고도 짐짓 입찰에 뛰어들었다는 풍문도 나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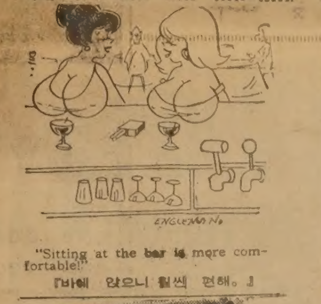
나야 가짜라는 것을 알지만 정부에서 진짜라고 발표한 이상, 이「진짜발표」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보자는 商術이 발동한 것이다.

다행히 실수요자의 손에 넘어갔다고, 해서 안심은 되지만, 廣州곰의 웅담은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웅담이 주사바늘 장난에 의해 개쓸개나 고래쓸개와 섞어져 1백개의「廣州곰」웅담, 2백개의「廣州곰」웅담으로 둔갑하지 말라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海外걸작漫畵



"Sitting at the bar is more comfortable!"
『바에 앉으니 훨씬 편해。』

『저사람과 결혼 않은게 다행이어요。그렇다고 당신과 행복한건 아니지만』
"I'm glad I didn't marry him, after all-not that I'm glad I married you."

아세아
건재약방
선물센타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청심환을
대량직수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하고저
하오니 일차
왕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北京同仁堂
牛黃清心丸
大量入荷

BIG SEVEN TRADING CO.
678 BLOOR ST. W. TOR.
(고려식품업)
☎: 530－0522.3
조지섭·김영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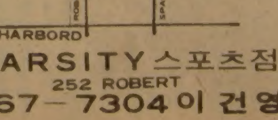
스타☆미용실
파마 스페샬 세일: $28.00
(기간 : 7월말까지)
예약 : 741－4410
시간 : 아침9시～오후8시
휴업 : 매주 일, 월요일
주소 : 2437 FINCH AVE.
WESTON, ONT.
(Finch & Weston)

Hair Stylist—Keo Kim

운동구점 개업
축구대회
특별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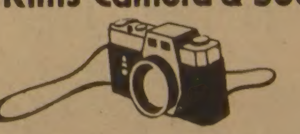
①어린이 축구화
가죽 19.99달러
합성가죽 13.99달러

②축구대회 : 단체유니폼 마춤
③각종 트로피및 감사패 주문
④ROLLER스케이트
사이즈 : 1 to 5 $39.00
Dominion Roller스케이트 $7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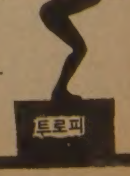
VARSITY스포츠점
252 ROBERT
967－7304이 건영

킴스카메라
및 트로피
Kim's Camera & Sound



취급품목 : ①카메라 일절
②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③여권사진및 시민권
사진즉석촬영
(5분이내)

대표 : 김 춘 탁
619 BLOOR ST. W.
B) 534－1085
R) 244－9073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會長 張康在
發行人 洪[illegible]
編輯人 鄭[illegible]濱
印刷人 李[illegible]和
編輯局長 楊[illegible]昇

全대통령 오늘下午歸國

한국鐵鋼 最優待가격 공급

한국·필리핀 19개項 共同聲明 발표

鑛物자원探査등 合作개발

建設·農業·製造業도 협력增大

◇7일밤 全斗煥 대통령이 마닐라호텔에서 주최한 答禮晩餐에 들어가기앞서 全대통령내외와 마르코스필리핀 대통령내외가 入口에서 참석인사들을 맞고있다.

【마닐라8日=尹國炳특파원】 全斗煥 대통령과 페르디난도·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8일 하오3시 (현지시간 하오2시·이하 한국시간) 양국頂上회담을 결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양국 대통령은 두나라가 경제적으로 相互補完的인 관계에 있으며 관계의 발전이 서로 이익이 된다는점을 인정하고 무역및 經濟協力을 일층擴大, 多邊化할것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양국의 상호이익을 위해 建設·農業·製造業및 공업분야에서 협력을 증대해 나갈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2·3면

19個項의 이성명은 ▲한국의 浦項제철이 앞으로 5년간 最優待가격으로 鐵鋼제품을 공급 ▲天然資源분야외 협력과 鑛物資源의 탐사·개발을 위한 합작투자장려 ▲投資保障協定을위한 교섭개시에 합의했으며 全대통령의 1·12및 6·5提議와 南北韓의유엔동시加入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필리핀側이 지지 했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14泊15일간에 걸친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泰國및 필리핀등 아세안5개국 巡訪을마치고 9일낮 마닐라공항을출발, 이날 하오 金浦着 귀국한다.

全대통령은 이날 귀국성명을통해 아세안 巡訪성과를밝힐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韓·필리핀공동성명은 『마르코스 대통령은 한국의 浦項製鐵이 82년부터 86년까지 5년간 필리핀 國立鐵鋼公社에 각종 철강제품을 最優待가격으로 공급하며 기술적문제및 鐵鋼시장개발에관한 상호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兩社간에 정기적인 협의를 가질것을 내용으로하는 협정이 필리핀경제에 크게 기여할것이라는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성명은 이어 『全대통령은 필리핀의 人的資源개발과 사회간접시설擴充을 위해 한국정부가 협력과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再闡明했으며 이와 관련, 특히 건설분야의 熟練工훈련을 위해 기술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밝히고 『양국지도자는 天然資源분야의 협력에 관해 논의하고 鑛物資源의 探査및 개발에있어 合作投資를 장려할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성명은 또『全대통령은 한국민간부문이 필리핀의 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것임을 밝혔다』고 말하고 『양국 대통령은 양국간의 投資증진을 위해 投資保障協定체결에 관한 교섭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으며 또한 二重課稅방지협정의 조기체결 희망을 표명했다』고밝혔다.

全대통령은 필리핀이 銅鑛, 原糖및 여타한국에서관심을 갖는 品目을 한국에 계속공급해줄것을 희망했으며 마르코스 대통령은 한국이 바나나, 파인애플, 코프라, 코피, 電子部品및 제조품등 필리핀의 新개척수출품에 대해주요시장이 되어줄것을희망했다』고 밝히고 『양국정부간의 과학및 기술협력협정체결에 만족을 표명하면서 특히 양잠연구및 度量衡분야의협력이 증진될것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南·北韓대화문제와 관련, 공동성명은『全대통령은 한국문제의 平和的해결을 위한 唯一한 현실적방도는 1·12및 6·5提議대로 南·北韓최고책임자간에 직접회담을 갖는 것임을 강조했으며 마르코스 대통령은 한국문제가對話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한다는 自國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러한 직접회담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두영도자는東南亞의 평화, 安定및 발전을 위해 공동의 努力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마르코스 대통령은 유엔憲章의 普遍性 원칙에 입각한 南·北韓유엔加入 실현노력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내외가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했으며 이 초청은 감사히 受諾됐다고 이성명은 덧붙였다.

97개工産品 가격監視

下半期지침 企劃院발표

引上땐 3일內報告 심사

정부는 7일하오 관계부처차관급으로 구성된 물가대책회의를 긴급소집, 공정거래법시행에 따른 工産品가격의 引上混亂을 막기위한 하반기 가격관리방안및지침을 마련했다.

이날밤8시30분 경제기획원이 전격적으로 발표한바에 따르면 ▲79년기준 연간 매출액 3백억원이상 품목으로 3社의 마키트·쉐어가 70%이상인 라면·맥주등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42개품목 71개사업자 ▲소다회등 연간매출액 1백억원이상 3백억원미만중에도 실질적으로 독과점을행사할수있는 32개품목 45개사업자 ▲시멘트 철근등 기타 국민경제상 긴요한 19개품목 33개사업자 ▲치약등 연간 매출이 1백억원미만이라도 완전1백%독점 4개품목 3개사업자등 모두 97개품목 1백52개사업자(중복제외)를 管理대상으로 선정, 정부가 집중적으로 가격동향을 監視키로했다.

정부는 기존의 물가안정법(16조)에 근거, 管理대상품목 및 사업자가 가격을 引上조정했을때는 인상내용을 주요거래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主務部와 경제기획원에 인상률, 原價및 決算자료등을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이를통해 정부는 가격의 引上또는 인하의 필요가있다고 판단될 때는 주무부가 검토, 경제기획원과 협의·조정한결과에따라 개별사업자별로 사후 규제와지도를하고 필요한때는 輸入개방, 긴급需給조정명령발동, 생산시설 확충을위한 金融·稅制지원등 공급확대조치와 關稅·물품세등 경쟁조건 개선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이같은 事後관리가 실효를거두지못할경우 最高價格지정, 공정거래법을 통한 과점업체의 가격남용및 同調인상制裁, 기타세무사찰등 유효行政制裁수단을활용, 과감한輸入개방등조치를취하도록 했다.

★관련기사4면

工産品 가격 管理 97品目 및 152업체

品目	事業者
◆시장지배적 사업자품목	
분유	남양, 서울, 매일
아이스크림류	해태, 대일, 롯데
유산균발효유	한국야쿠르트, 해태, 남양
대두유	동방유량, 제일제당
비스킷	해태, 롯데, 동양
라면	삼양식품, 농심
정당	제일, 삼양사, 대한제당
껌	롯데, 해태, 동양
화학조미료	서울미원, 제일제당
맥주	동양, 조선
사이다	롯데칠성, 한양, 우성
콜라	한양, 범양, 호남
아크릴방적사	한일합섬, 태광산업
신문용지	전주, 세대, 대한
크라프트지	대원, 쌍용, 조일
폴리스티렌	한남화학
PVC	한국프라스틱, 럭키
나일론F사	동양, 코오롱 (나일론), 고려
자양강장변질제 (드링크류)	동아, 일양, 동화
자동차타이어	삼양, 한국, 동신화학
판유리	한국유리공업
레미콘	쌍용, 진성레미콘, 강원산업
빌레트	포항종합제철
중후판	포항종합제철
열연박판	포항종합제철
냉연박판 (냉연협폭대강)	포항제철, 연합철강, 일신제강
열연광폭대강 (핫코일)	포항종합제철
아연도강판 (착색아연도강판)	연합철강, 포항제철, 일신제강
스테인리스강판	한국종합, 동양물산
동피	한국광업, 온산동, 건설산업
알루미늄피	대한알미늄
경운기	대동공업, 국제종합기계
TV수상기 (컬러TV포함)	금성사, 삼성전자, 대한전선
자동전화교환기	금성통신, 동양정밀
가정용냉장고	금성사, 삼성전자, 대한전선
선풍기	신일산업, 금성사, 삼성전자
통신케이블	금성, 대한, 국제
전력케이블	대한, 금성, 국제
승용차	현대, 새한, 기아
일반버스 (고속버스포함)	새한, 현대, 아세아
일반화물차 (특수용제외)	기아, 새한, 현대, 아세아
자동차디젤엔진	대우중공업
◆시장지배력행사가능품목	
소다회	동양화학
주철관	한국주철관, 영진주철
주석도강판	동양석판, 일신제강
폴리에스터F사	선경합섬, 코오롱, 대한화섬
아연괴	고려아연, 영풍
합성세제	럭키, 애경유지
병마개	삼화왕관
SBR	한국합성고무
이륜차	기아기연, 효성기계
슬레이트	한국스레이트, 금강
카본블랙	럭키콘티넨탈카본
면복지	태창기업, 전방
동내의	쌍방울, 백양, 태창
화장비누	동산유지, 럭키
영양화장수	태평양, 한국화장품
코피	동서식품, 미주산업
영양크림	태평양화학, 한국화장품
건전지	호남전기, 서통
중질지	전주제지, 세대제지
LDPE	한양화학
VCM	한양화학
PP	대한유화, 호남석유
AN모노머	동서화학
동판	풍산금속, 이구산업
링베어링	한국베아링
HDPE	대한유화
피아노	영창악기, 삼익악기, 서진
전기세탁기	금성사, 삼성전자, 대한전선
아트내의	한국, 계성, 홍원
면내의	백양, 쌍방울, 태창섬유
대두박	동방유량, 제일제당
합금철	삼척산업, 한국합금철, 동일
◆기타 국민생활에 중요한 품목	
모혼방직물	제일, 경남, 원풍
철근	동국, 강원산업, 인천제철
시멘트	쌍용, 동양, 한일
강관	부산파이프, 동양철관, 일신
형강	인천제철, 강원산업
PVC 파이프	럭키, 진양, 한국프라스틱
유리병	두산유리
가공주스	동아식품, 한양식품, 해태
백상지	홍원, 남한, 한국
마닐라판지	신풍, 대한, 대한펄프
보통강선재	인천제철, 동국, 포항제철
혼방면사	한일합섬, 태광산업
순면사	대농, 충방, 대한방직
합판	대성목재, 한국합판, 태창목재
세탁비누	동산, 무궁화, 평화
볼펜	(주) 모나미, 문화, 파이롯트
감기약	동아, 광동, 동화
소화제	한독, 동화, 일양
소주	진로, 금복주, 보해양조
◆100억원 미만중 100% 공급독점품목	
치약	(주) 럭키
카프롤락탐	한국카프로락탐 (주)
다이너마이트	한국화약 (주)
TPA	삼성석유화학
計97개품목	152개사업자 (중복제외)

"北傀 南侵하면 失敗"

초반優勢하나 反擊하면 곧逆轉

中共軍副참모장 平壤방문分析

【東京7日=聯合】중공은 北傀가 남침을 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남한을 제압할수있으나 곧 반격을 당해 오히려 전세가 역전될것으로 판단하고있다고 일본의 정통한 관계소식통이 7일 밝혔다.

중공의 이같은판단은 지난 5월12일 平壤을 방문, 吳振宇인민무력부장등 北傀군 실력자들과 일련의 회담을갖고 귀국한 중공인민해방군 참모장 伍修權이 분석한 것이라고 이소식통은 전했다.

北傀南侵위협增大 駐日美軍사령관

【東京8日=宋孝彬특파원】 윌리엄·진 駐日미군사령관은 8일 하오 東京외신기자클럽에서 『北韓이 특수부대를 창설, 계속적인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휴전선을 통해 간첩을 남파하고 ▲땅굴을 수 없이 파는등 남침의도가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남침 가능성을 막기위해 한국의 방위력을 증강하고 한국정치의 안정이 절대필요하며 미군의 긴급동원능력이 진요하다』고 강조했다.

北傀, 짐바브웨 派兵

金日成제의 기계화步兵 2개大隊등

金日成은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의 무가베수상에게 최근 기계화 보병2개대대와 전투공병1개중대를 派兵키로 제의했다고 문공부 해외공보관이 8일 전했다.

해외공보관은 최근 西獨문헤네르베르쿠르紙 보도를 인용, 金日成이 짐바브웨에 派兵제안을 하면서 댓가를 요구, 用兵으로외화를벌려고한 것이라고분석했다고밝혔다.

임시國會 召集추진

民韓, 民正반대땐 국민당과 공동要求

17일 總務회담

제108회 임시국회소집여부가 오는13일께열리는 총무회담에서 결정된다.

民正黨이 『議題가 있으면 언제든지 소집한다』는 原則을 재확인하고 있는데 반해 民韓黨은 국민당등의 호응을 얻어서라도 소집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議政同友會는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놓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注目된다.

李鍾贊 民正黨총무는 8일 『야당一角에서 임시국회 소집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로선 임시국회를 열만한 案件이 없다』면서 『全斗煥대통령의 아세안 巡訪이 끝난후 순방결과를 임시국회에서 다룰것인지 아니면 外務委를 소집, 盧信永외무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을것인지는 他黨총무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案件만 있으면 언제라도 국회소집을 연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국회가 소집되지 않을경우에는 外務委로대치하고 또오는20일께는 국방위도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民韓黨은 8일상오 黨소속 국회 各常任委간사회의를 열고 임시국회議題에 관해 논의했는데 高在淸총무는 『7월 임시국회를 10일간의 會期로 오는20일께 열어야 한다는게 나의 구상』이라고말하고 『앞으로 총무회담에서 합의하여 임시국회를 소집하는것이 바람직하지만 여당이 끝내 不應할 경우 국민당과 議政同友會와 공동으로 소집요구를 할수도있다』고 말했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국민당의 李東鎭총무는 이날 『국회소집문제는 黨간부들과 협의, 黨論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李萬燮총재는 『그동안 상임위가 잇달아 열려 당면한 案件들을 많이 소화시켰지만 全斗煥대통령의 東南亞巡訪결과, 追更예산, 夏季防疫문제등을 다루기 위해서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駐이란 한국大使館 職員 7명으로縮小

이란서 通報…通商·經協영향없어

외무부는 8일 이란外務省이 이란駐在한국대사를 불러 駐이란대사관원을 7명(외교관3, 非외교관4명)으로 축소할것을 통고해왔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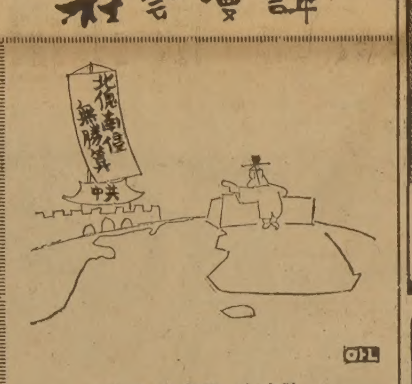
金在植외무부대변인은 이같은 사실이 7일하오 駐이란 한국대사를 통해 전달됐다고 밝히고 『이란은 우리의 전통적인 友邦國으로 금번의 이와같은 조치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되나 조속히 原狀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金대변인은 그러나 이번조치에도 불구, 양국간의 通商·經協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을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신예 F16機 한국에 첫配置

【워싱턴7日=聯合】 미공군이 최초로 해외기지에 배치하는 F16최신전폭기가 주한미공군에 배속되기 위해 최근 한국에 도착했다고 미국방성당국이 7일 밝혔다.

社会漫評



"저기 읽을줄 아나?!…"

地平線

사회정화운동이 차츰 궤도에 오르고있는 이때 믿기어려운 부정사건이 잇달아 생겼다. 하나는 회사의 탈세를 폭로하겠다고 전직간부 7명이 사주를 협박해서 3억8천만원이나 뜯은 사건이고, 또 하나는 서울의 도심인 모구청 위생과직원들이 업자로부터 뇌물을받아 구속되거나 도주한 사건이다.

▼얼마나 많은 돈을 탈세했길래 3억여원이나 뜯길정도로 회사측에 약점이 컸었을까, 언뜻 심상치않다는생각이든다. 직장의 비리를 미끼로 장부등관계서류 1백여건의사본을만들어 공갈한 전직간부이하 협박자의 소행이 못마땅한반면 굴지의 회사대표는 돈을 얼마나 벌고 싶었길래 탈세까지 하면서 공갈을 받아야 했을까하고 한심해지기만한다.

▼구청위생과의 경우는 더어이가없다. 관내식품접객업소인·허가때 10~30만원선의 커미션을 받았고, 위생검사등을 구실로 뜯은 금품을 간부와 직원이 절반씩 분배했다는 것이다. 그뿐아니라 장기상납업소명단을 담당직원이 바뀔때 인수인계까지했다니 참으로 놀랍다. 게다가사고수습비, 감독기관교제비, 월간경비등으로 월평균 1인당 몇만원씩 과경비를모으고 과장빈서랍에 상납창구까지 만들었다는데 이르러서는 듣는 귀가 의심이날정도다. 이번사건은 돈이탐나서 어쩌다 저지른 사건이 아니라 타성에서 못벗어난 부조리라는데 주목이 간다. 신문에는 대중음식점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고 크게 나는데 이와는 정반대의일이 벌어졌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그간공무원숙정은 상당한 효과를거둬 일반시민들도 피부로느껴질정도로 관기가 정화되고있다. 그러므로 이번사건은 어쩌면 一魚濁水格일것 같기도 하다. 하나 이러한 부정의 밑바닥에는세제의 복잡성, 불합리성이 남아있는데도 원인이있지않을까 생각된다. 간단한 예로 청계천에 한번들러보면 세금문제가 얼마나까다로운가를 알수있다. 조그마한가게에까지경리아가씨가꼭 있게마련이고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주느냐안주느냐로 물건값이 달라질수도 있는판이다. ▼이번의 파이로트회사사건이나구청위생과의부조리적발을 계기로누구나 환히알수있는 세제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 2361

결혼·약혼 예물은 로렉스와 다이야몬드 천당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05
은 : 온스당 US 10.2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424-2599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교포사회의 등불 한국일보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2361

한국관

새로운 메뉴로 여러분의 식탁을 풍성하게 서비스하고 있아오니 꼭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연말연시 각종연회, 동창회, 결혼피로연, 환갑잔치등 각종모임, 단체손님 대환영

※특별메뉴
곱창전골백반
생선초밥
꼬리곰탕
즉석불고기
민어매운탕
육회, 어초회

•영업시간• 오전11시~새벽1시
628 BLOOR ST. W. ☎: 536-0290, 531-0277

波、새 罷業危機직면

共黨대회앞두고 埠頭노조등 들먹

【바르샤바7日(UPI)=聯】폴란드는 7일 약4만6천명에 달하는 발트해안의 부두노동자와 바르샤바의 국영항공사 직원들이 근로조건개선과 임금인상의 요구를내걸고 경고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함으로써 오는14일 개막되는 폴란드공산당비상대회를 1주일 앞두고 새로운 파업위기에 직면했다.

폴란드자유노조는 이날 발트연안의 그다니스크·그디니아및 스체친등 주요항도의 부두노동자 4만명이 장비의 현대화를 포함한 근로조건개선과 임금인상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8일 1시간동안의 경고파업을 벌이고 만일 당국이 그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10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바르샤바의 로트국영항공사자유노조대변인은 항공사직원6천여명이 투표를통한 민주적절차로 임원을 선출할수있도록 허용한 새법률에따라 지난5월27일 6명의 후보중선출한 브로니스와프·룰리마첸스키이사의 임명승인을 운수성이 거부하고있는데 항의하여 9일상오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동안 경고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對蘇전략 협의하는 미테랑과 대처英首相

지난주 룩셈부르크에서 대처 영국수상과만나 對蘇전략등 서방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한 미테랑 프랑스 大統領。(左)

佛、蘇 軍事力우위 不容

미테랑會見 "協商은 힘의均衡토대로"

【파리7日AFP=聯】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만일 소련이 폴란드를 침공할경우 동서간의 화해와 군축및 집단안보를 위한 모든 협상의 기회가 봉쇄될것이라고 경고했다.

미테랑 대통령은 9일 발행되는 서독슈테른지와의 인터뷰에서 소련의 SS20미사일과 백파이어폭격기배치는 유럽에서의 힘의 균형을 「파괴」했다고 말하고 「본인은 이같은 균형의 파괴를 수락할수없으며 균형회복을 위한 재무장을 주장한다」고 강력히 선언하고 ...

美국내販禁藥 해외로

副作用많은 殺虫劑등 自由輸出

반즈議員、禁輸法案의회提出

【뉴욕7日AP=聯】미국의화학및 제약회사들이 미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되어있는 살충제등 화학품을 다른나라에 자유수출하고있다고 일간 뉴욕·저널·오브·커머스가 7일 보도했다.

核미사일 배치支持 스파돌리니 伊首相

【로마7日AP=聯】지오반니·스파돌리니 이탈리아 수상 ...

日、對美군사기술提供키로

상호 防衛協力일환…이미 目錄작성

【東京8日=聯】일본정부는 미국측이 상호방위협력의 일환으로 일본측에 요구하고있는 군사관련 기술제공문제에 관해 민간기술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응한다는 방침아래 ...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시상최초로 여성대법원 판사로 지명된 샌드러·오코너 여사가 7일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는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있다。

【피닉스7日AP電送=聯】

美에 첫女性 大法院판사

레이건、오코너女史 지명

폴란드 大主教에 글렘프主教 임명

人權局폐지 검토

美國務省、레피버는 長官고문

트뤼도、7國會議때 危機管理構想 제창

쿠르시나、西獨도착 美亡命 蘇발레리나

메아리

的中率 85%

相互補完시대의 開幕

全大統領 아세안5個國巡訪 결산

安保일체감…協力지속 支柱마련

한국開放體制의 우월성·自信感과시

지난달25일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등 아세안(東南亞국가연합) 5개국巡訪에 나섰던 全斗煥 대통령은 좋은 성과와 갖진 고홍을얻고 9일 귀국하게됐다.

【마닐라=尹國炳특파원】

페론、스페인갈듯 아르헨 出國승인

【부에노스아이레스8日(UPI)=聯】

海外토픽

密酒에 百26名사망 ★印南部 뱅갈로르市에서

最고령 最연소記錄 ★日人들 킬리만자로征服

오늘의 歷史 <9일>

▲스위스 독립 (1815)
▲외몽고공화국 성립 (1924)
▲정치집회 자유화 (1947)
▲韓·美행정협정 정식조인 (1966)
▲유엔安保理, 수에즈감시단 파견 결정 (1967)
▲군사정전위 중공대표 5년만에 복귀 (1971)
▲사회안전법안등 4대戰時法案 국회통과 (1975)

1981년도
제9회 런던한인친선 골프대회

친애하는 한인골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본 런던한인골프협회에서는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아래 한인친선 골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하오며 보다 많은 시상과 아울러 흥미있는 코스로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많은 참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7월18일 토요일 오전10시30분
장 소 : Thames Valley Golf & Country Club(런던) 1-519-471-5100
회 비 : $25(Green fee & Dinner)
상 품 : 그로스 1, 2, 3 / 넷 트 1, 2, 3 / (Annual Trophies) / Longest Drive, Nearest, Honest, Lucky Seven, Nearest hole / (Cash prize $100) / 이외에 다수 부상 있음

신청및 연락처 :
신 동 삼 : 519-681-7149(런던)
김 태 수 : 519-438-6644(B) 519-471-1293(R) (런던)
김 흥 랑 : 416-482-0166(토론토)

주최 : 런던한인골프협회
회장 신 동 삼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 B) 535-2143 R) 656-3446
대표 이 정 석

서 울 식 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 -밤1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 카드에 담아서 원하는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Spadina코너)
☎ : 977-3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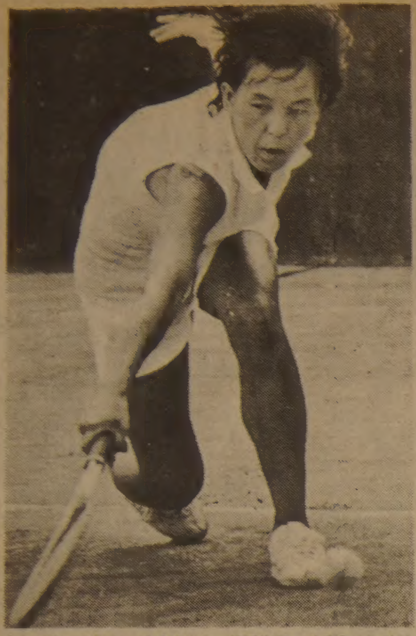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Gruppe West Germany
ZEISS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콘텍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썬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at Gerrard) TORONTO, ONT. TEL : 595-1665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 363-0684
영업시간 ●월~토 9 : 30AM~6 : 00PM ●월~토 11AM 7PM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주 내에서 가장 큰 가죽제품 스토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음
각종 가죽옷 도산매
192 SPADINA AVE. TOR.
☎ : 368-4215, 368-0114

金壽玉 5勝 단독先頭

제3세트 9차례듀스 細技의 韓恩淑꺾고

페더레이션컵 테니스派遣 선발전


◇드롭·샷으로 공격해오는 韓恩淑의 빈곳을 노리며 金壽玉이 네트로 대시하며- 하프·발리로반격하고있다。

金壽玉(동헌)은 8일 장충코트에서 벌어진 제19회 페더레이션·컵 세계여자테니스 선수권대회파견 대표선발전 3일째 경기서 2시간40분간에 걸친 격전끝에 포핸드 스트로크의 우세로 韓恩淑(조흥은행)을 6-0、3-6、6-3으로 누르고 5승의 단독선두에 나섰다。 金壽玉은 고른 세기를 갖춘 韓恩淑의 파이팅에 의외로 고전、제3세트서만 9차례나 듀스를 거듭하며 게임·스코어 5-3으로 추격당했다。 金壽玉은 종반 백핸드의 약세를 노출、포핸드로만 볼을 쫓다가 심한 체력소모로 9번째 게임을 0-40으로 놓쳤으나 韓恩淑의 잇단 스트로크 미스와 날카로운 패싱·샷으로 따라붙어 2차례의 듀스를 깨뜨리고 韓恩淑이 비워둔 라이트·코트에 깨끗한 포핸드 발리를 성공시켜 매치·포인트를 잡았다。 9세트 2번째게임서는 듀스를 이룬 가운데 韓恩淑의 타구가 왼쪽 사이드·라인을 벗어나 金壽玉이 자신의 포인트로 판단했으나 라인스맨이 세이프로 선언、가벼운 판정시비가 있었다。 薛旻敬(동헌)은 이날 高志賢(경상대)에 6-2、5-7、6-1로 승리、3승2패를 기록했다。

◇제3일 전적
金壽玉(5승) 2 (6-0 3-6 6-3) 1 韓恩淑(4승1패)
薛旻敬(3승2패) 2 (6-2 5-7 6-1) 1 高志賢(5패)
李廷順(3승2패) 기권 申順浩(5패)

◇제2일 전적
韓恩淑 2 (6-4 6-2) 0 趙恩玉
李廷順 2 (6-3 6-1) 0 薛旻敬
金壽玉 2 (6-2 6-2) 0 高志賢
金男淑 기권 申順浩

忠南商 緖戰장식
中高배구、東草에 3대1逆轉勝

【釜山=聯】 제16회 전국남녀우수중고배구대회겸 제8회회장기쟁탈 전국중고대회가 모두 23개팀(고12·중11)이 참가한가운데 8일 釜山九德체육관에서 개막、첫날 남고A조경기에서 忠南商高는 東草高에 3-1로 역전승을 거두고 서전을 장식했다。 忠南商高는 이날 경기초반 東草高 세터 강운의 정확한 토스와 블로킹에 고전、첫세트를 15-10으로 빼앗겼으나 2세트부터 1년생 주공 金鍾木(1m83)의 강연공이 주효해 내리 3세트를 빼내 고 승리했다。

◇첫날전적
▲남고A조
충남상고 3 (15-12 15-10 15-3 10-15) 1 속초고
▲여중A조
서울성서 2 (15-12 15-12) 0 부산수정
▲동B조
서울일신 2 (15-10 15-7) 0 부산남성

종별卓球 선수권
전국81개팀 出戰

제27회 종별탁구선수권대회가 전국 81개팀 7백6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가운데 오는10일부터 麗水에서 열린다。

존즈盃 국제농구 決勝리그
한국、뉴질랜드 完破
朴良桂활약·朴賛淑 슛작렬

한국 여자농구대표팀은 7일 自由中國 中華체육관서 진행된 제5회 존즈배쟁탈 국제농구대회 결승리그 첫경기서 뉴질랜드를 52-36으로 완파하고 2승을 기록했고、뉴질랜드는 2패를 당했다。 결승리그는 라운드·로빈방식에의해 진행되어 예선서싸운팀끼리는 재대결치않는다。 따라서 예선서 전승을 거둔 한국을 비롯해 美國、네덜란드、自由中國 靑팀은 1승을 안고 결승리그에 오르게되며 2위로 결승리그에 진출한 自由中國 白팀、캐나다、西獨、뉴질랜드는 1패를안고 싸우게 된다。

한국은 8일하오 8시30분(한국시간) 네덜란드와 2차전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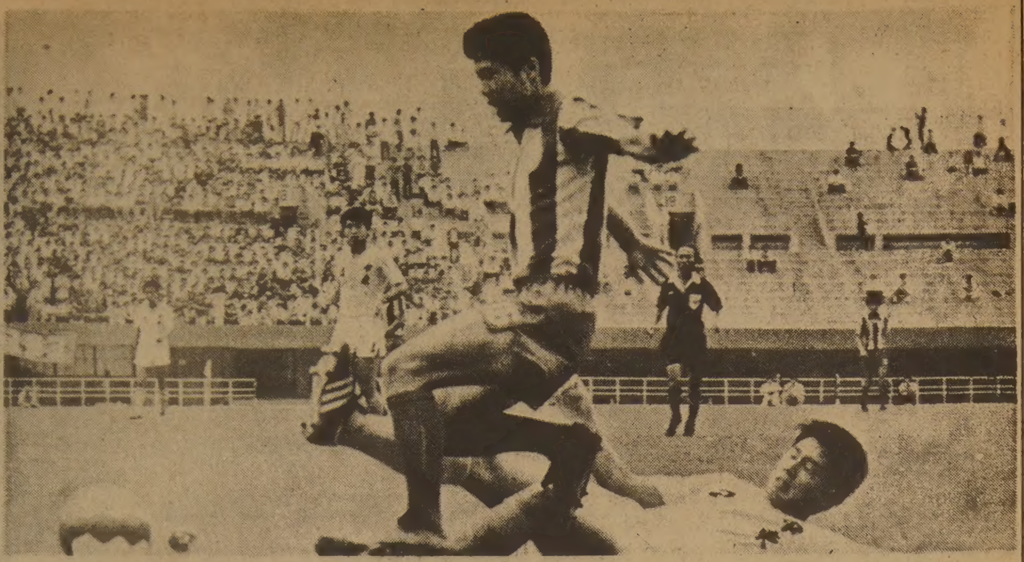
이날 한국은 朴贊淑 金和順 朴良桂 洪英順등을 기용、뉴질랜드와 맞섰으나 장신에 막혀 초반에 고전했다。 한국은 주무기인 중거리슛이 제대로 터지지 않았고 金和順 朴贊淑의 플레이가 장신에 막혀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朴良桂 洪英順의 활약으로 전반을26-23으로 앞섰다。 후반들어 한국은 朴良桂가 2개의 연속 드라이브·인을 성공시켜 페이스를 찾은후 金和順 朴贊淑의 슛이 되살아나 52-36으로 득승했다。

◇결승리그 첫날전적
한국 52 (26-13 26-23) 36 뉴질랜드
(2승) (2패)

폴러크네트 世界新
투원반72·34m던져

【스톡홀름7日=聯】 美國의 벤·폴러크네트는 7일밤 스톡홀름에서 거행된 국제육상대회 투원반종목에서 72·34m를 던져 세계신기록을 수립했다。

남자투원반의 종전세계기록은 폴러크네트선수 자신이 지난5월16일 美國캘리포니아 모데스토에서 수립한 71·20m였다。


◇깊은 태클도 무위 — 錦湖高의 HB 金相鎮가 中東高 FB 文永一의 태클을 쌍관뛰어넘어 골을 향해 달리고있다

光州 錦湖高 감격의 우승

釜山大會 이어 올 2冠王
前半2골 中東눌러
대통령金盃 고교축구

光州錦湖高가 제14회 대통령금배쟁탈 전국고교축구대회 패권을 차지했다。 錦湖高는 8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中東高와의 결승전에서 2-0으로 창단 6년만에 이대회 첫우승을 차지、釜山MBC대회우승과함께 올해 2관왕이 됐다。

錦湖는 전반전시작 3분만에 李炳基의 도움을 받아 朴光男이 중거리슛으로 선제골을 뽑고 전반35분에 盧仁佑의 절묘한 패스를 宋有鉉이 골문으로 가볍게 밀어넣어 2-0으로 승세를 굳혔다。 中東은 錦湖스위퍼 金判根이 핵을 이룬 수비진에 막혀 고전했고 전반38분 金鍾夫가 슛한볼이 문기둥을 맞고튀어나오는 불운까지겹쳐 패했다。

우승팀 錦湖는 오는8월11일부터 日本에서 열리는 韓·日친선축구대회에 출전하고 7년만의 패권탈환에 실패한 中東은 8월15일 日本에서구마모토현선발팀과 친선경기를 벌인다。

최우수選手 吳承錫(錦湖)

팽팽할것으로 예상되던 양교의 대결은 錦湖가 초반에 선제골을 뽑아내 대세를 가름지었다。 전반3분 錦湖는 中東페널티에어리어 오른쪽에서 李炳基가 슬쩍 밀어준볼을 朴光男이 정면18m지점에서 낮고 강한 슛을날렸다。 中東GK 車相光이 몸을 날렸으나 볼은 오른쪽 귀퉁이네트에꽂힌후였다。 中東의 패스는 자주 錦湖 미드필드에서 뒤졌으며 錦湖스위퍼金判根은 2년생답지않게 노련하게 中東의 공세를 막아냈다。 錦湖는 전반24분에도 宋有鉉이 中東빈골문앞에서있는 吳承錫에게 연결해준 볼을 헤딩슛을 시도했으나 옆으로지나가 추가득점기회를 놓쳤고 33분 宋有鉉역시 빈골문을 마주보고 밀어넣은볼이 빗나갔다。 2분후 宋有鉉은 주장 盧仁佑가 적절하게 패스해준볼을 골문으로 밀어넣어 한골을 추가했다。

◇결승전적
광주금호 2 (2-0 0-0) 0 중동고

◇개인상
▲최우수=吳承錫(금호FW) ▲득점=朴昌夏(창신공FW) 6골 ▲지도상=金相求(금호코치)

鄭聖敎·崔景植·徐元上 花郞팀에 기용
黃石根은 복귀

대한축구협회는 7일 제12회 자카르타市 창립기념대회(인도네시아·8월13일~23일) 및 제25회 메르데카배쟁탈대회(말레이지아·8월31일~9월20일)에 출전할 대표팀 花郞의 18명선수를 확정했다。

종전 20명선수중 지난달말 대표팀에서 은퇴한 李榮武 洪性號(이상 할렐루야) 崔鍾德(포철)등 3명과 할렐루야로 복귀한 GK 趙炳得、제3회세계청소년대회(10월·호주)에 주력하게될 청소년대표 GK 崔仁榮、제11회 대통령배국제대회에 일시기용된 全仁碩(충의)등 6명이 대표팀花郞에서제외됐다。

한편 새로기용된 4명의선수는 지난4월 쿠웨이트 월드컵예선 직전 다리부상으로 花郞에서 일시제외됐던 黃石根(고려대)과 FB 崔景植(24·대우) FW徐元上(23·대우) GK 鄭聖敎(21·연세대3년)등인데 이중 黃石根을 제외한 3명은 대표팀에 처음 발탁됐다。

축구협회 기술위는 花郞팀 일부개편에대해 『한달후에있을 동남아대회에만 대비키위해 엔트리 18명으로 축소시켰으며 대폭적인 개편은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연말께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崔淳鎬등 일부 신인이 이번 花郞팀개편에서 제외된것은 세계청소년대회에만 힘을 기울이도록하기 위해서다。

◇花郞명단
▲코치=金正男(고려대) ▲트레이너=金鎬坤(서울신탁은) ▲GK=崔光植(주택은) 鄭聖敎(연세대) ▲FB=朴成華(충의) 張外龍(연세대) 權五孫(서울시청) 朴景勳(한양대) 崔景植(대우) 尹仁善(주택은) ▲HB=趙廣來(충의) 李康助 李泰昊(이상고려대) ▲FW=吳錫載(제일은) 李太晔(서울시청) 丁海遠·邊炳柱(이상연세대) 黃石根·趙觀衍(이상고려대) 徐元上(대우)

美洲卓球여행 ②
—全美오픈大會의 意味
崔회장"中共꺾을 秘策숙제"무거운 짐
金浣동주축 第一合纖5승2패로 樂勝
LA시범競技서 在美동포들 사기높여

第一合纖남자팀、東亞建設여자팀으로 이루어진 한국탁구선수단이 美國원정에 오른 것은 지난6월11일 하오9시30분。 출발에앞서 강적 中共과 日本이 참가한다는 소식과 崔元碩회장의 『中共을 깨뜨릴 秘策을 찾아오라』는 당부로 선수들의 어깨는 가볍지않았다。

호놀룰루를 거쳐 로스앤젤레스공항에 도착한 시간 역시 11일 하오9시30분。 선수단을 실은 KAL점보기는 인간이 만든 시공의 벽(일부변경선)의 좁고 1초의 경과도 없이 똑같은 시간에 서울을 출발、太平洋을 건너 L·A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東亞建設、大韓通運등의 LA주재사원들이 환영 피켓을 들고 마중 나와있었다。

숙소로 정해진 올림피안·호텔로 가는길에 한국교포들이모여있다는올림픽거리를 드라이브 했다。 안내자는 『사막을 이렇게 푸르게 가꾼 美國사람들이참 대단하다』고 찬양했지만 올림픽거리에 줄지어선 한글간판을 바라보며 일행은 『美國사람들을 밀어내고 이역에 뿌리를 뻗고있는 한국사람들이 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있었다。

L·A 방문목적은 이지역에서 탁구를 즐기는 우리 교민들에게 세계선수권 준우승을 차지한 모국대표 선수들의 높은 기량을보여 주는데 있었다。

12일 상오 할리우드 탁구클럽이라는 사설 탁구장에서 첫 훈련을 가졌다。 선수단 안내를맡은 在美한인탁구협회의 선수들도 함께 훈련에 참가했다。

美國에서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우선 한국선수들의 연습자체가 대단한 구경거리인듯했다。

연습장앞길을 잰 걸음으로 달리며 유연체조로 몸을 푸는 선수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마다 차를 세우고 무슨 팀이냐고 묻고는 한국탁구선수단이라는 응답에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며 미소를 보내왔다。

14일 아드모어·파크의체육관에서 찌는듯한 무더위속에 美國캘리포니아주대표팀과 친선경기를 가졌다。

美國팀에는 美國선수권 6연패로 이름을 떨친 우리교포 李達俊씨를 비롯、越南출신의 왕、前미국 주니어챔피언 레니등 만만찮은 호적수들이 있었다。 그러나 金浣、金琦澤、劉時興등 국가대표가 주축을이룬 第一合纖은 5단2복식의 경기서 5승2패로 낙승했다。 宋楨儀가 李達俊씨에게、劉時興이 레니에게 단식 2게임을 잃었으나 나머지 3단식 2복식에서 완승했다。

東亞建設여자팀은 대적할 상대가 없어 시범경기만 가졌다。

선수단은 LA서 여행의 피로를 덜기위해 12일하오 교외에 떨어진 매직·마운틴을 찾았다。 주중임에도 불구하고 백색、갈색、흑색의 각종 인종들이 함께 뒤섞여 청제공원의 드릴을 즐기고 있었다。 우리 선수들 역시 바이킹·보트、공중에서 3백60도의 회전을 일으키는 레일의오싹한 드릴로 장거리여행의 피로를 씻었다。 【方錫晌기자】

韓人 原爆피해 日本서 映畵化

【東京7日=聯】 재일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억압과 고난의 발자취를 그린 최초의 기록영화 『세계의 여러분에게』가 일본의 한 방송작가에 의해 제작되고있다。

히로시마(廣島) 나가사끼(長崎)현의 한국인피폭자협회의 협력하에 7일 원폭투하지인 히로시마에서 현지로케가 시작된 이기록영화는 전전에 징용등으로 강제로 일본에끌려와 원폭피해를 받고 눈물겨운 차별대우속에서 불구의몸으로 고난을겪고 살아온 재일한국인피폭자 1백여명의 증언을토대로 구성된 것으로 36년간 그늘에숨겨진 재일한국인의 수난의 비극사가 생생하게 담겨질것으로 기대된다。

蹴球응원단 충돌
10여명 부상

8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대통령금배 고교축구결승 錦湖高-中東高전에서 경기종료 15분을 남기고 동편 스탠드에서 응원하던 中東高선배들과 錦湖高응원단간에 충돌사고가 일어났다。

경기초반부터 서로 붙어앉아 신경전을 벌이던 양팀 응원단은 경기가 막바지에 이르자 흥분이 고조돼 빈소주병과 음료수캔을 서로 마구던지는 불상사를 빚었다。

張吉山 (1607)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67)

이경순은 우대용과 옥여외에는 모두 초면의 사람들이었고, 그의 눈은 자연히 길산에게로 가서 멎었다。 김기는 갓 쓰고 도포 입은 차림이었고, 나머지 선흥이와 길산이었는데, 아무래도 선흥이에게서는 그가 막연하게 길산의 모습이 이러저러할 것이라고 여겨왔던 면모가 보이지를 않았던 때문이었다。 선흥이의 우람한 어깨와 억센 뼈대 그리고 너부죽한 턱이며 순진스런 눈동자에는 어떤 기민함이나 유연성이 엿보이지 않았다。

『뭘 그렇게 두리번거리구 있우』

우대용이가 핀잔을 주었다。

『아니…사람들이 많기에』

이경순은 본심을 들킨 기분이 되어 우물쭈물 얼버무리고는 방안으로 들어왔다。 대용은 속도 없이 다시 덧붙였다。

『주막 주인 초파일에 절탓이라더니、곡 그 격이구려。 어서들 인사나 허시우』

김기가 먼저 상체를 굽신해보였고 이경순도 마주 인사를 하였다。

『봉산 김기라는 사람이오』

『여주 이경순 올시다』

『존함은 우두령에게서 진작부터 듣고 있었오이다』

김기가 다시 말하였으며 이경순은 대용이 쪽을 돌아보며 답하였다。

『벌써 만났어야 할텐데 이제 인사가 늦었읍니다』

하고나서 이경순은 길산에게로 몸을 돌렸다。 길산이 먼저 양손으로 방바닥을 짚으며 고개를 숙였다。

『문화 장길산입니다』

이경순은 함께 머리를 숙였다。

『이경순이오』

그는 고개를 들며 다시 길산을 바라보았다。 길다랗고 가는 눈이 날카로왔고 광대뼈가 솟았으며 콧날은 오뚝하였으며 꾹 다문 입술에는 어딘가 위의가 있어 보였다。 그가 표정없이 경순을 조용하게 마주 볼적에 눈매는 부드러워져서 눈아래에 그늘진 주름이 생겨나 있었다。 경순은 묘옥의 오른쪽 젖가슴에 연비로 찍힌 길(吉)자를 볼적마다 그를 수십가지의 모습으로 떠올려보곤하였고, 묘옥은 내색하지 않았으나 다만 아들을 낳았을제 지나는 말 비슷이 표를 냈던 적이 있었다。 제 가슴의 연비는 한때 천첩의 정한이 깊어 병들었을제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도장님의 아이를 낳게 되었으니 그때의 정한이 없었다면 제가 어찌 창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겠어요。 경순이 문산포에서 떠날제 묘옥은 그가 해서로 간다는 것을 알았고 구월산에 오른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경순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당신도 구월산에 가보고싶지 않소、하였더니 묘옥은 다만 아이를 추스려 경순의 턱아래로 치켜 주면서 대주하던 것이다。

저보구 싶으면 문산포루 빨리 오셔요。 그러나 그때 묘옥의 눈은 흐려져서 눈물이 밖으로 넘칠것 같았다。 그러나 묘옥이 길산을 잊었을리가 만무하였다。 대용이 강화로 내려가던길에 파주에 들러 하루를 묵어 가고는 하였으니、구월산이 함몰되던 소식을상세히 알려준것도 그였다。 우대용과 중길이와 전생이 그리고 이경순등이 둘러앉아 서로 탄식하고 주먹을 부르쥐며 얘기를 주고받는데 갑자기 방밖에서 요란하게 그릇 깨어지는 소리가 들렸었다。 방문을 열고 내다보니 마침 술상을 차려들고 섬돌에 오르던 묘옥이 상을 떨어뜨리며 넘어지던 참이었다。 경순이 달려나가 부축하여 일으키니 묘옥은 안색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이경순은 묘옥을 사랑하는 그만큼 그러한 미세한 일에 언제나 부대꼈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Century 21.

금주의 새리스팅

1. 건물+가게
— 주매상 $4100 가격 $129,500
— 주매상 $3700 가격 $125,000
— 주매상 $4000 가격 $139,000
— 주매상 $4000 가격 $189,000

2. 집
— 밤갈로 독채 3 베드룸 뭍게지 양호 134,900
— 아파트 10채 달린집 229,000

3. 가게
— 주매상 $37 00 시간 오전9시~오후8시 주일 닫고 그로서리 없음.
쇼핑센터에 있는 기프트 상동 다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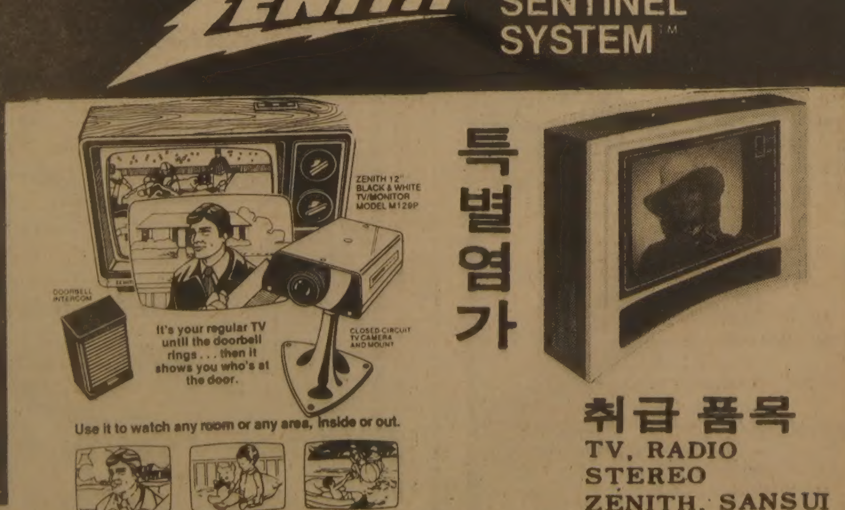
4. 동양계 식당 일요일 닫으며, 이윤이 좋고 사정에 의해 급매코자 함.
적은 Down payment $15,000—20,000

황용현

경영상담
투자상담
모기지알선

로차부동산 318 BATHURST ST
(B)361—0880 (R)286—1548

ZENITH VIDEO SENTINEL SYSTEM™



특별염가

취급 품목
TV, RADIO
STEREO
ZENITH, SANSUI
AKAI, TOSHIBA

삼성사 668 BLOOR ST. W. ☎: 533—4125

나의 이력서

〈國字 玄信圭〉

玄信圭 ⑰

九州大 초빙敎授로

71年 日學術단체지원으로 大學院에

다른 大學도돌며 外國육종학情報등 特講

모교로부터, 그것도 佐藤에은 모교로부터 교수로 초빙되는 일은 감격이었다. 또 존경하는 스승을 26년만에 再會, 사제의정을 나눌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모교에의 초빙교수 뭇지않게 잠자던 감정을 부풀렸다.

71년 9월부터 11월말까지 日本학술진흥회의 재정지원으로 나는모교인 九州대학 입학과에 석달동안 교수로 초빙되어 갔다.

은사의 한분이자 日本 입목육종학의 개척자인 佐藤敬二교수는 이미 정년퇴임한 후였다. 佐藤교수는 벌써 50년에 「林木育種」이란 책을 펴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서독에서 발간되는 입목육종에관한 세계유일의 학술지 「산림유전육종」의 아시아지역 편집위원으로 위촉될만큼 명성을 얻은 학자였다. 이같은 학자가 있어서 九州대학은 입목육종학의 本山이 될만했다.

그교수가 정년퇴임을 하기에앞서 福岡에서 멀지않은 사사구리(篠栗)연습림을 입목육종센터로 만들기를 해왔으나 지지부진했다. 바로 이일을 도와주면서 대학원의강의를 맡아달라고 나를 교수로 초청했던 것이다. 자극을 기대했던 셈이다.

육종학연구센터가 독립기구가 아니고 연구사업에 전념한 연구원도 없어 침체상태에있음을 파악한 나는 佐藤교수의 뒤를 이은 미야지마(宮島)교수에게 육종센터를 九州대학의 독립된 연구기구로 만들어 연구원을두고 연구실적을 올리도록 건의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宮島교수는 마침 학생과장직까지 맡고 있어서 육종센터의 기초를 다지는데 노력을 기울일수 없어 내 기대와는 어긋났다. 나는 적이 실망했다. 그렇지만 당시 日本에 만연한 솔잎의 材線虫피해를 극복하는방안으로 耐虫性육종을하는 한편으로 타지대다소나무를 심도록 촉구했다. 몇년이 흘러 최근년에야 솔잎의 材線虫피해지역에 타지대다를 심었다는 계획을 세우고 내게 협의를요청해왔다.

이어서 나는 鹿児島대학에서 北海道대학까지, 그리고 그사이 자연구소를 누비며 「입목육종학의 최근의 진보」에 관해 특강도 하고 내가 얻은 외국의 정보를 소개했다.

고침=本欄 75회 「첫 女性육종학박사」孫仁實양은 孫仁實양의 誤記이옵기 바로 잡습니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걷잡을수 없는 10代… 또 脫線

女高生들 교실 放火기도

夜間部14명 "퇴학警告" 앙심

책걸상 모아놓고 석유뿌려

걷잡을수 없는 10代가 또 일을 저질렀다. 퇴학경고를 받은 여고야간부 학생들이 학교측에 항의한다며 교실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7일하오4시 서울龍山區 S여중고 구관4층 중학교 3년團반 교실에서 이학교 야간고교2년仁반 鄭모양(18)등 6명과 3학년생등 8명이 책상과 걸상을 교실뒤쪽에 몰아놓고 석유를 부어 불을 지르려다 복도를 지나가던 중학생이 이상히 여겨 1층교무실에 달려 미수에 그쳤다.

中學生이 신고、아슬아슬 危機넘겨

가방검사때 루즈·마스카라등 나와

학교측에 따르면 鄭양등은 이날하오 3시50분께 학교에 와 근처 석유가게에서 대형주전자2개에 3천원어치의 석유를 사들고 4층중학교3년교실로 올라가 『교실에서 행사가있으니 나가달라』며 시험공부를 하고있던 중학교3년 鄭반학생 10여명을 몰아낸뒤 의자와책상을 몰아붙이고 석유를 뿌렸다.

때마침 복도를 지나던 여중1년생이 이를 발견 중학교교무실에 알렸는데 교무회의중이던 교사10여명이 급히 올라가 이들을 모두 교무실로 데리고 내려갔다.

이들은 교무실에서 『학교측이 2부학생들을 1부와차별대우하고 건물이 낡아 학교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불을지르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며칠전 불러 꾸지람을했는데 이날3교시가 끝난뒤 李모양(17)이등중 6명이 자진퇴학경고를 받은데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르려했던것으로 보고있다.

국립師大 綜合大學서 분리

독립單科大學으로 졸업생 他職이탈 못하게

李文敎、美서밝혀

李奎浩문교장관은 서울大등 국립대학내에 있는 사범대를 독립된 단과대학으로분리、교사양성에만 전념하도록하고 졸업생들은 교직이외의 타직장취업을 못하도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本因坊 5局

趙名人 執白으로

潛水됐던 潛水橋개통

147시간30분 記錄

食用油값 하락

10代、億臺훔쳐 홍청

승용차 몰며 遊興街누비다 잡혀

친구구하고 國校生 溺死

차별대우 납득안가

崔明子교장

모른 종이 위의 生 〈143〉

趙善作
禹慶熙畵

그림자 놀이 ㊿

流星의 賊 〈126〉

李炳注作
李友範畵

亡兆의 日月 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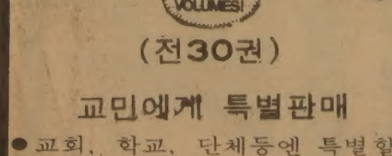
교포특별우대… 이 쿠폰과 함께 20%할인 …남자용각종의류 및 악세사리 미스터오 FOR MEN

TIE CITY
Square One
275-2187

Mister O
Cumberland Centre
2 Bloor St. W.
964-2606

Mister O
Commerce Court Centre
869-0589

大英百科辭典
BRITANNICA 3



NOW 30 VOLUMES!
(전30권)
교민에게 특별판매
● 교회、학교、단체등엔 특별할인
● 국민학교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쓸 수 있읍니다.
● 모국의 동생、스승、학교에 보내는 편리한 방법도 있읍니다.
문의처 : 745-5485　미세스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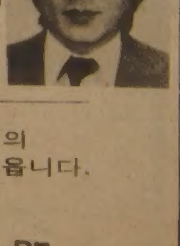
〈 금주의 스페샬 〉

Coca Cola / Hi-C / Sprite　10온스 can	$ 5.99
Moirs Bag캔디 24"×25¢	3.45
Garbage캔디 〃	3.75
Life-savers Lolli-pops(jar) 96×10¢	6.25
Lollies(swizzle) 160×5¢	5.09
Life-savers캔디 24×30¢	4.45
Rown-Tree킹·싸이즈 바 24×59¢	9.49
넬슨 Thick바—슈프림、저시 36×55¢	13.69
Tottee(오렌지) crispeptes 12'	11.88
Tart-N-Tiny 24'×25¢	3.85
Gobstoppers 24×25¢	3.85
YNS Cigars파이프(CHEWS) 48×10¢	2.89
Bazooka 껌 36×10¢	2.25
키스코 드링크 24×30¢	4.39
넬슨 훼밀리 바 24×99¢	14.69
Hickory스틱(B.B.Q. 스타터)	67¢

920 CALEDONIA RD.　789-7214
MR. 김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에 한함)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